

#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달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296호 2025년 07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센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 제6기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발대식

일시: 2025년 6월 25일 3시 장소: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지역사회 다양한 정보 전달해 이주민의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 경기도, 제6기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출범...7개 언어권 32명 구성, SNS 활동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6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제6기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결성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은 외국인주민이 직접 도정과 생활정보를 취재하고, 다국어 콘텐츠

를 제작해 소셜미디어로 확산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다양한 언어와 시각을 가진 기자단이 외국인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전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이주민과 도민이 소통하는 통로이기도 한 기자단은 과거 활동과 다른 변화를 기대한다. 크고 작은 일상의 문제,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메시지를 SNS에 올려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이 경기도민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6기 기자단은 5월 공개모집을 통해 1차 서류,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됐

며,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캄보디아어·태국어·몽골어·네पाल어 등 7개 언어권 출신으로 구성됐다.

기자단을 비자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E-9, E-7, F-2) 결혼이민자(F-6), 유학생(D-2), 영주권자(F-5), 동포(F-4) 등 다양하다. 특히 지난해보다 몽골어권(6명)과 네팔어권(1명)이 처음 참여하면서, 활동 언어권이 더 확대됐다.

6기 기자단 소개 순서에서는 현장 참가자들이 기자단 활동에 대해 다양한 소감과 포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호티우엔 기자는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경기도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됐다”며

“이러한 정보가 저의 생활과 주변의 친구들 생활을 더 즐겁게 하고 저 자신이 성장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발대식 후에는 기자단 운영사인 파파야스토리 송하성 대표가 취재 방법 및 기사작성법 등을 강의했다.

기자단은 올해 연말까지 도정 소식, 생활정보, 외국인 정책, 지역축제, 재난안전 정보 등 외국인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제작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자증과 취재 물품, 콘텐츠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7 오산 8~9 구리 10~11 남양주 12~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평택 22~26 용인 27~29 연천 30 과천 31 화성 32~36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3, 5, 19, 28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11, 17, 29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9, 13, 23, 31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5, 28, 33 영어(English) 14, 23 몽골어(Mongolian) Монгол хэл 11, 17, 33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2, 5, 29 생활정보 Information 12, 18, 21, 29 나의 학습 My Study 8, 10, 14, 22 도서관 Library 4, 15 교육 Education 27 이주배경청소년 4, 7 행사 Event 36 사이버대 27 보건 Health 6 경기외국인SNS기자단 1 외국인주민 29 동포 2 보험 Insurance 17, 28, 31 안전 Safety 11, 14, 19, 21, 23, 33 공모 Public Offering 5, 9, 33 청년 Young Man 3, 13, 23

##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 집중 지적해 예산 절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지난해 결산 및 올해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의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는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6월 13일(금)부터 17일(화)까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제3차 회의를 열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7건 등을 심사 의결했다.

13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의 2024회계연도 결산안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위원회 위원들은 사업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반복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항목,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16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되었으며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41개소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업 3억 5천만원 신규 편성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8억 5천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기기 지원 14억원 등 총 76억의 예산을 증액·의결했다.

17일 제3차 회의에서는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며, 원안 가결 4건, 수정가결 2건, 보류 1건으로 의결되었다.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위원장과 김민호(국민의힘, 양주2) 부위원장 등 13명의 위원은 3일간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열띤 심사를 이어갔으며, 향후 예산안 심의 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감시와 견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비가 적정한지,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및 정책 효과성은 충분한지 등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일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해주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해주신 집행부 직원들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경기도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의 성과 및 문제점을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들 또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의 의원들께서 조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어 조속히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심사된 결산 및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6월 27일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함께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 재외동포 경제·문화적 협력 기반 조성

이인에 의원 발의, 재외동포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인에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인에 의원은 이번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경제·문화적 상호협력 기반 조성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정의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업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재외동포지원·협력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인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재외동포가 경기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와 서로를 이해하며 소통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인에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가 재외동포의 주거, 의료, 교육, 취업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등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기도의 역할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인에 의원은 지난 6월 17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저출생 극복 정책 연구회’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개최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송하성 기자

## 장민수 의원, ‘우수조례’ 수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26일 개최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로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는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다수의 청소년 관련 조례들 가운데 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원칙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조례’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기도 청소년 자치법규의 일반적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 점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 다(多)누리꾼, ‘여성독립운동가, 그 길 위의 이야기’ 참여

외국인 시정홍보단 다(多)누리꾼이 지역사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는 지난 6월 26일 가족여성회관 및 화성행궁 일대에서 다누리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독립운동가, 그 길 위의 이야기’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에게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 수원의 자랑스러운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수원에서 오래 거주했지만 쉽게 알기 어려운 지역사회 역사와 여성 운동가에 대한 탐방을 진행함으로써 다문화가족들이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시간이 됐다.

최세연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은 “다문화가족 여러분을 만나면 늘 반갑고 즐겁다”며 “오늘 선선한 날씨 속에서 지역사회 역사를 공부하며 여성에 대한 동질감과 연대를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먼저 수원시가가족여성회관 경내에 설치된 ‘안점순 기억의방’을 방문한 참가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안점순 선생의 생애에 대해 배웠다.

안점순 선생은 14세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

를 겪은 뒤 1992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고 2018년 영면에 들 때까지 여성인권운동가로 살았다.

역사를 해설한 이동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은 “우리가 오늘 듣는 아픈 이야기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라며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모든 국가가 손을 잡고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약 5분을 걸어 일제강점기 농업 침략을 위한 건물로 활용된 ‘수원 구 부국원’ 건물을 방문했다.

이 건물은 해방 이후 관공서, 병원, 인쇄소 등으로 활용되며 근대 수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했다. ‘그 길 위의 이야기’ 프로그램을 마무리한 다누리꾼들은 ‘수원시 주요 시정소식 안내 및 의견수렴’ 행사에 참여했으며 이후 ‘XR버스 1795행’ 탑승 행사에도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 중국 출신 다누리꾼은 “항상 지나 다니던 길에 이렇게 깊은 역사가 숨어있는지 처음 알게 됐다”며 “수원의 역사에 대해 많이 배웠다. 그래서 수원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프로그램은 수원시 여성문화공간휴센터가 지원했다.

송하성 기자



### 走向海外的京畿青年， 开启了更广泛的机会之门

#### 京畿青年气候行动海外志愿服务

你知道对于居住在京畿道的青年来说，现在有了一个更广阔的发展机会吗？

京畿道将在7月8日之前招募200名青年参加气候行动海外志愿服务。

“京畿青年气候特使团”为了消除京畿道知事金东渊强调的气候差距问题，以植树、修整林地、环境教育等应对气候危机的志愿活动为主进行。

京畿道计划在8月份向蒙古、吉尔吉斯斯坦、菲律宾3个国家派遣120人，10月份向柬埔寨、老挝2个国家派遣80人。参与者将获得包括航空、食宿等在内的所有志愿活动经费。

参与对象为截至公告日期，目前居住在京畿道的19~39岁青年，签证发放没有问题并可以进行海外志愿活动的青年。

虽然外国人不能报名，但希望多文化家庭青少年积极报名。

申请可以在apply.jobaba.net 上在线进行。申请者对象经过文件审查和面试审查后，将于7月21日公布合格者。

合格者将在派遣前完成素质教育和各小组当地活动计划制定，8月和10月中将被派遣到当地进行为期3周的志愿活动。详细事项可以咨询Kaya International (070-5121-2198)。

#### 京畿青年阶梯项目

为青年提供海外大学研修经验，消除社会差距，支援开拓多种前途机会的京畿青年阶梯项目第3期338名参加者将从6月末开始前往美国、加拿大、澳大利亚等全世界8个国家的12所大学。

京畿道21日在京畿道厅茶山大厅举行了“2025年京畿青年阶梯项目3期”启动仪式，为338名青年走向世界的第一步加油助威。

“京畿青年阶梯项目”是民选第8届代表青年政策之一，消除国内外研修经验的差距，扩大探索前途的范围。

今年第3期从激烈的16.7:1竞争率中脱颖而出的338名青年，计划从6月30日开始在▲美国（密歇根大学、布法罗大学、华盛顿大学、UC欧文大学等）▲加拿大（UBC）▲澳大利亚（悉尼大学、昆士兰大学等）▲英国（爱丁堡大学）▲法国（格林诺布尔阿尔卑斯大学）▲西班牙（阿尔卡拉大学）▲新加坡（国立大学）▲中国（北京大学）等8个国家的12所大学进行研修。

行政1副知事金成中表示：“这是京畿青年们在国外通过多种活动成长的好机会，希望有热情的京畿道青年们多多挑战”，“今后也会尽全力制定更好的青年政策，让所有人都获得选择的机会”。

〈한글 기사 13면〉

경기의외국인SNS기자단

# '텃밭프로그램', 자연의 소중함 느끼고 성취감 얻어요

##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경기 한국어랭기지스쿨(KLS) 디딤돌학교 운영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운영민요셉 센터장)는 수원교육지원청 공모사업으로 경기 한국어랭기지스쿨(KLS) '디딤돌학교(초등)'을 운영하고 있다.

디딤돌학교는 최근 이 수업의 일환으로 수원시 「2025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텃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텃밭 프로그램은 엽채류(상추, 썬갓 등), 과채류(토마토 등), 근채류(콜라비, 땅콩 등) 등 다양한 작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오가니 텃밭 조성하기', 텃밭 팻말 만들기, 주기적인 텃밭 관리 및 수확, 수확한 재료를 활용한 요리 등을 진행한

다. 이러한 체험은 학생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와 함께 활동함으로써 농업과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교과시간(과학)과 연계하여 식물의 의미 알기,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 알기 등 학습을 통해 디딤돌학생들이 텃밭에 보다 큰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몇몇 참가자들은 "텃밭 수업하는 요일만 기다려져요.", "공부한 내용을 실제로 보면서 식물을 키우니까 너무 신기해요." 등의 소감을 전했다.

경기 한국어랭기지스쿨(KLS) 디딤돌학교(초등)는 약 90일간 단기 위탁 형식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으로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과 언어 기반의 기초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이주배경 초등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언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켜 교우 관계 형성과 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데도 도움

이 되고 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현재 '디딤돌학교' 2학기(90일)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다. 디딤돌학교는 8월 1일(금)~12월 12일(금)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학생 집중 모집기간은 6월 16일(월)~7월 11일(금)까지이다.

신청 절차는 위탁학생 상담(재적학교 ↔ 보호자) → 위탁상담(재적학교/보호자 ↔ 위탁학교) → 한국어 능력 진단 → 위탁신청 → 수탁확정의 과정을 거친 후 위탁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된다.

신청 시 재적학교 서류가 위탁교육기관(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에 제출되어야만 신청 완료가 되므로 모집기간 내 신청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디딤돌학교(초등)' 교육과정은 재적학교 수업 대신 센터 내 수업에 참여하여 출석 인정, 수업일수 이수가 가능하다.

이외 사업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swglobalyouth.com)의 '프로그램 안내' 탭 확인 또는 031-247-1324로 문의하면 친절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하성 기자

# 호매실도서관, 방학 맞이 영어교육 모집

수원시 호매실도서관이 여름방학 맞이 운영하는 7~8월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대별 눈높이에 맞춘 영어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등 다양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다. 이성숙 강사(이화여대 TESOL학 석사)가 강의한다.

▲'리더스' 읽기 능력 향상 수업(초등 3~4학년) ▲'알포니스 오렌지' 영어 그림책으로 알파벳과 파닉스 학습(초등 1~2학년) ▲'논픽션' 논픽션 지문을 읽으며 어휘와 관련 지식 학습(초등 3~4학년) ▲'스토리타임 레드&블루' 영어 그림책 이야기 듣기(2019~2020년생, 초등 1~2학년) 등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별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호매실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 도서관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매실도서관 관계자는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영어를 즐겁게 접하며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끼고 실력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2025경기 한국어랭기지스쿨 (학교밖)

# Let's go school

## 이용자모집

**경기한국어랭기지스쿨(학교밖)이란?!**

본국의 학적을 증명하기 곤란하거나 한국어 활용능력 결여 등으로 공교육에 진입하기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언어적, 문화적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 진입 및 학교적응을 도모하는 다문화교육기관입니다.

<b>모집기간</b>	6월 16일(월) ~ 7월 18일(금)
<b>모집대상</b>	공교육 진입을 희망하는 14세~19세 경기도 거주 이주배경청소년
<b>수업기간</b>	7월 28일(월) ~ 12월 9일(화)
<b>수업장소</b>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내 교육실

**교육내용**

- 표준한국어 교육
- 한국사회, 문화이해 교육
- 학교생활 적응 활동 (반장선거 등)

**구비서류**

- 출생년월일 확인 가능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등)
- 거주지 증명자료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예방접종증명서

접수 및 문의 / 031.247.1324 박세현 사회복지사

재단법인 원주교수원교우유지재단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 경기 한국어랭기지스쿨(KLS) 디딤돌학교

### 위탁학생 모집

경기 KLS '디딤돌학교'는 초등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으나 낮은 한국어 실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 중도입국)의 한국어 소통 능력 향상, 교우관계 형성 및 학교 생활 적응을 도모하는 위탁교육입니다.

**| 모집 대상**

초등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으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3~6학년 이주배경청소년

**| 운영 안내**

운영 방식 / 단기 위탁(90일간 집중 교육 후 원적교 복귀)  
- 2학기 : 8월 1일(금) ~ 12월 12일(금)  
\* 상시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육 시간 / 09:00 ~ 14:30 (주 5일, 6교시, 한 교시당 40분)  
\* 수요일 : 5교시(09:00 ~ 13:40)  
교육 장소 / 센터 내 교육실 및 외부  
모집 기간 / 6월 16일(월) ~ 7월 11일(금) \*이 후 상시모집

**| 지원절차**

위탁 희망 상담 (재적학교 ↔ 보호자)

위탁 상담 (재적학교/보호자 ↔ 위탁학교)

한국어 사전 시험 (위탁희망 학생)

위탁 신청

수탁 확정

**| 문의**

전화 / 070-4125-3308 / 031-247-1324 초기적응팀 권우경 대리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41번길 4(화서동)

**| 교육 과정**

언어교과  
한국어, 한국어사 (언어기반)

기초교과  
수학, 과학 (언어기반)

심리지원교과  
예술교과, 창의적체험활동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재단법인 원주교수원교우유지재단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영상 공모전 통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통합 분위기 만들어요”

## ‘이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기도’ 영상콘텐츠 공모전 진행, 7월 18일까지 연장 접수

경기도가 오는 7월 18일까지 ‘제1회 이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기도 캠페인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해요. 이번 공모전은 이민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어요. 당초 공모 기간이 6월 20일까지였으나 7월 18일까지 연장됐어요.

이번 공모전에는 외국인(귀화자 포함)과 이민사회 통합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2~5인)으로 참가할 수 있어요.

공모주제는 ‘이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기도-이민사회 통합과 조화’이며 이 주제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아요. 공모 부문은 △이민사회 통합 메시지를 담은 ‘공익광고 슷폼 영상’ △이주민과 지역사회

가 어우러지는 이야기를 전하는 ‘체험수기 동영상’ 등 2개 분야예요. ‘공익광고 슷폼 영상’은 공모주제와 관련된 공익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고 ‘체험수기 동영상’은 출생지(국)와 가족의 삶, 한국으로 오게 된 사연 및 현재의 한국생활, 앞으로의 꿈과 비전 등 개인적인 내용을 담으면 돼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작에는 총 1500만 원의 상금과 경기도지사 상장이 수여돼요. 수상 규모는 △대상(2명) 각 300만 원 △최우수상(2명) 각 200만 원 △우수상(2명) 각 100만 원 △장려상(6명) 각 50만 원 등이예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작품을 제출한 경우 중복해서 수상할 수 없으며 최고점 작품 1개만 인정돼요.

참가 신청은 공모작을 비롯해 공모전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를 전자우편(bravo8032@gg.go.kr)으로 제출하면 돼요. 이 서류는 파파야스토리 토크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에 문의하면 돼요.(031-8030-4682)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공익광고와 체험수기를 통해 실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이주민과 지역사회 간 소통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이민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낼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중국어 하단, 러시아어 9면, 몽골어 33면,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더 다양한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通过视频征集活动创造多元文化共存的社会融合氛围”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 가능

京畿道将举办第一届与移民一起成长的京畿道活动视频内容征集展，征集日期延长至7月18日。

此次征集活动旨在提高居民对移民社会的理解，并创造多元文化共存的社会融合氛围。原定的提交截止日期为6月20日，但已延长至7月18日。

只要是外国人(包括入籍者)和对移民社会融合感兴趣的人，都可以以个人或团队(2~5人)的身份参加此次征集活动。征集的主题为“与移民共同成长的京畿道—移民社会的融合与和谐”，只要与这一主题相关的内容都可以参与。征集领域包括△包含移民社会综合信息的“公益广告

短视频”△讲述移民和地区社会融合故事的“体验手记视频”等两个领域。“公益广告短视频”是包含与征集主题相关的公益内容的视频，“体验手记视频”是包含出生地(国)和家庭的生活、来到韩国的故事及现在的韩国生活、今后的梦想和蓝图等个人内容即可。

通过审查选定的优秀作品将获得共1500万韩元的奖金和京畿道知事奖状。

获奖规模为△大奖(2名)各300万韩元△最优秀奖(2名)各200万韩元△优秀奖(2名)各100万韩元△鼓励奖(6名)各50万韩元等。一个人提交多个作品时，不能重复

获奖，只认可1个最高分作品。参赛申请需通过电子邮件(bravo8032@gg.go.kr)提交参赛作品、申请书、同意书及承诺书。相关文件可以在“Papaya Story Talk”菜单中下载。如需详细信息，可以联系京畿道移民社会支援科 031-8030-4682。

京畿道移民社会局长金元奎表示：“通过公益广告和体验手记分享实际案例，进一步促进移民与当地社区的交流。我们期待此次征集活动能发掘出推动移民社会积极变化的优秀内容。”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ยิ่งพบปะและใช้เวลาร่วมกับ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บ่อยเท่าไร ก็ยิ่ง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มากขึ้นเท่านั้น

ยิ่งอายุน้อยและมีปฏิสัมพันธ์กับผู้ย้ายถิ่นมากเท่าไร ก็ยิ่งพบว่าคนในประเทศมีระดับ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 (Multicultural Acceptance) สูงขึ้น 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หมายถึงทัศนคติที่เข้าใจและยอมรับผู้คนที่มี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 วัฒนธรรมที่หลากหลาย ตามผลการสำรวจ “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แห่งชาติปี 2024” ที่ประกาศโดยกระทรวงสตรี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เมื่อไม่นานนี้ 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ผู้ใหญ่อยู่ที่ 53.38 คะแนน เพิ่มขึ้น 1.11 คะแนนจาก 52.27 คะแนน ในปี 2021 ในทางกลับกัน 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เยาวชนอยู่ที่ 69.77 คะแนน ลดลง 1.62 คะแนนจาก 71.39 คะแนน ในการสำรวจครั้งก่อนในปี 2021

สำหรับผู้ใหญ่และเยาวชน ยิ่งอายุน้อย 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ก็จะสูงขึ้น ในกลุ่มผู้ใหญ่ ช่วงอายุ 20 ปี มีคะแนนสูงที่สุดที่ 55.44 คะแนน ตามด้วยช่วงอายุ 30 ปีที่ 54.75 คะแนน, อายุ 40 ปีที่ 53.54 คะแนน, อายุ 50 ปีที่ 53.11 คะแนน และผู้ที่มิอายุ 60 ปีขึ้นไป อยู่ที่ 51.14 คะแนน ส่วนในกลุ่มเยาวชน นักเรียนมัธยมต้นมีคะแนนสูงถึง 71.00 คะแนน และนักเรียนมัธยมปลายอยู่ที่ 68.52 คะแนน

ยิ่งมีปฏิสัมพันธ์กับผู้ย้ายถิ่นหรื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และเพื่อนจาก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บ่อยเท่าไร 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 ก็ยิ่งสูงขึ้นเท่านั้น สำหรับผู้ใหญ่ ระดับ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แปรผันตามความถี่ในการมีปฏิสัมพันธ์กับผู้ย้ายถิ่น โดยผู้ที่ มีปฏิสัมพันธ์ “สัปดาห์ละครั้งขึ้นไป” มีคะแนนอยู่ที่ 56.38 คะแนน, “เดือนละครั้ง” อยู่ที่ 54.52 คะแนน, “ปีละครั้ง” อยู่ที่ 53.79 คะแนน และผู้ที่ “แทบไม่มีปฏิสัมพันธ์เลย” มีคะแนนลดลงเหลือ 52.35 คะแนน

ทั้งผู้ใหญ่และเยาวชนต่างมองว่า “การช่วยแก้ปัญหา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 เป็นผลเชิงบวกจากการเพิ่มขึ้นของผู้ย้ายถิ่นมากที่สุด โดยมี สัดส่วนอยู่ที่ 78.3% และ 83.5% ตามลำดับ

สำหรับผู้ใหญ่ พวกเขามองว่าการเพิ่มขึ้นของผู้ย้ายถิ่นนั้น เป็นเรื่องที่ดี โดยให้เหตุผลตามลำดับดังนี้ “ช่วยบรรเทาปัญหาประชากรลดลง” (67.3%), “ส่งผลดีต่อเศรษฐกิจโดยรวม” (65.6%), “เพิ่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ให้กับวิถีชีวิต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 (55.3%) และ “ช่วยเสนอแนวคิดใหม่ๆ และส่งเสริมนวัตกรรม” (45.9%)

สำหรับผลกระทบต่อลบจากการเพิ่มขึ้นของผู้ย้ายถิ่น สิ่งที่ถูกมองว่ากังวลมากที่สุดคือ “ภาระต่อระบบสวัสดิการ”

โดยอยู่ที่ 73.1% ในกลุ่มผู้ใหญ่ และ 52.2% สำหรับเยาวชน รองลงมาคือ “การเกิดความขัดแย้งทางสังคม” (58.0% และ 49.7%) และ “ปัญหาอาชญากรรม รุนแรงขึ้น” (51.4% และ 35.5%)

เจ้าหน้าที่จากกระทรวงสตรี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กล่าวว่า “สัดส่วน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ในเกาหลีเพิ่มขึ้น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 และในช่วงหลังนี้ ผู้ย้ายถิ่นจากการสมรสที่ตั้งถิ่นฐานระยะยาว รวมถึงเด็กและเยาวชนพหุวัฒนธรรมในวัยเรียนก็เพิ่มขึ้น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 จึงเป็นช่วงเวลาที่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และการขยายความเปิดกว้างมีความสำคัญมากกว่าที่เคย” พร้อมเสริมว่า “เราจะพยายามอย่างเต็มที่ในการเสริมสร้าง การศึกษาเพื่อความเข้าใจพหุวัฒนธรรมที่เหมาะสมกับแต่ละกลุ่มเป้าหมาย และเพิ่มโอกาสใน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และสื่อสาร เพื่อสร้างสังคมที่ ยอมรับและเคารพ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

การสำรวจการเปิดรับ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เป็นสถิติที่ได้รับการรับรองระดับ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จัดทำทุก 3 ปี โดยการสำรวจในครั้งนี้ ดำเนินการกับผู้ใหญ่ช่วงอายุ 19-74 ปี จำนวน 6,000 คน และนักเรียนมัธยมต้นและมัธยมปลายจำนวน 5,000 คน รวมเป็นทั้งหมด 11,000 คน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ការណែនាំអំពីការបង្ការជំងឺទាក់ទងនឹងកម្ដៅនៅក្នុងរលកកម្ដៅនៃរដូវក្ដៅ



## 1. អនុវត្តតាមច្បាប់មូលដ្ឋានទាំងបី

កន្លែងធ្វើការនៅខាងក្រៅ	កន្លែងធ្វើការខាងក្នុង
<b>ទឹក</b> ● ផ្តល់ទឹកត្រជាក់ និងស្អាត / ផ្តល់ទឹកឱ្យបានញឹកញាប់ដល់មន្ត្រីការ	<b>ទឹក</b> ● ផ្តល់ទឹកត្រជាក់ និងស្អាត / ផ្តល់ទឹកឱ្យបានញឹកញាប់ដល់មន្ត្រីការ
<b>ម្លប់</b> ● ផ្តល់ម្លប់ (កន្លែងសម្រាក) នៅជិតកន្លែងធ្វើការ ● ផ្តល់គ្រឿងស្រោចស្រាវជ្រាវដល់មន្ត្រីការ ● ផ្តល់គ្រឿងស្រោចស្រាវជ្រាវដល់មន្ត្រីការ	<b>ខ្យល់</b> ● ដំឡើងឧបករណ៍ស្តុកខ្យល់ និងសំណើមនៅកន្លែងធ្វើការ ដើម្បីបង្កើនការចង្រៃខ្យល់ ● ដំឡើងកញ្ចក់ និងម៉ាស៊ីនត្រជាក់តាមតំបន់ដែលមានកម្ដៅខ្ពស់ ● គ្រប់គ្រងសីតុណ្ហភាពនៅខាងក្នុង ទោះបីនៅលើកម្ដៅការនៅលើយប់ក៏ដោយ
<b>សម្រាក</b> ● ផ្តល់ការសម្រាកជាដាច់ខាតយ៉ាងហោចណាស់ 10 ទៅ 15 នាទី នៅពេលដែលការណែនាំអំពីកម្ដៅ (ការប្រុងប្រយ័ត្ន ការជូនដំណឹង) ត្រូវបានប្រកាស ● កាត់បន្ថយការងារនៅខាងក្រៅដល់មន្ត្រីការ (14-17)	<b>សម្រាក</b> ● ផ្តល់ការសម្រាក 10 នាទី រៀងរាល់ម៉ោង ● កាត់បន្ថយ ឬក៏ប្រើប្រាស់ឧបករណ៍ការងារនៅខាងក្រៅដល់មន្ត្រីការ

## 2. ការឆ្លើយតបនឹងរលកកម្ដៅ

ការព្យាបាលដោយវិទ្យាសាស្ត្រ ឬក៏មន្ត្រីការ ប្រសិនបើមានសញ្ញាណាមួយនៃជំងឺទាក់ទងនឹងកម្ដៅ

**ការជូនដំណឹង ឬការដាក់ស្រោចស្រាវជ្រាវដល់មន្ត្រីការ**  
សីតុណ្ហភាពតាមអាម៉ូម៉ែត្រចាប់ពី 35°C ឡើងទៅ

- ផ្តល់ការសម្រាក 15 នាទី រៀងរាល់ម៉ោង
- ការព្យាបាលដោយវិទ្យាសាស្ត្រ លើកលែងតែពេលដែលស្រោចស្រាវជ្រាវដល់មន្ត្រីការ

**ការជូនដំណឹងអំពីគ្រោះថ្នាក់កម្ដៅ**  
សីតុណ្ហភាពតាមអាម៉ូម៉ែត្រចាប់ពី 38°C ឡើងទៅ

- ផ្តល់ការសម្រាក 15 នាទី រៀងរាល់ម៉ោង
- ការព្យាបាលដោយវិទ្យាសាស្ត្រ លើកលែងតែសម្រាប់ការងារត្រូវគ្រោះថ្នាក់ខ្ពស់ និងសុវត្ថិភាពដល់មន្ត្រីការ

សីតុណ្ហភាពយប់យើង

**លក្ខខណ្ឌទូទៅ**  
សីតុណ្ហភាពតាមអាម៉ូម៉ែត្រចាប់ពី 31°C ឡើងទៅ

- ការផ្តល់ព័ត៌មានអំពីរលកកម្ដៅដល់មន្ត្រីការ
- ផ្តល់ទឹកត្រជាក់ និងម្លប់ (កន្លែងសម្រាក) និងខ្យល់
- ការផ្តល់ឧបករណ៍ស្តុកខ្យល់ដល់មន្ត្រីការ
- ការគ្រប់គ្រងកម្ដៅដែលប្រើប្រាស់កម្លាំង និងគ្រឿងស្រោចស្រាវជ្រាវ

**ការប្រុងប្រយ័ត្នការណែនាំអំពីកម្ដៅ**  
សីតុណ្ហភាពតាមអាម៉ូម៉ែត្រចាប់ពី 33°C ឡើងទៅ

- ផ្តល់ការសម្រាក 10 នាទី រៀងរាល់ម៉ោង
- កាត់បន្ថយ ឬក៏ប្រើប្រាស់ឧបករណ៍ការងារនៅខាងក្រៅដល់មន្ត្រីការ

## 3. វិធានការក្នុងករណីមានជំងឺទាក់ទងនឹងកម្ដៅ

ប្រសិនបើមានសញ្ញាណាមួយនៃជំងឺទាក់ទងនឹងកម្ដៅ ទំនាក់ទំនងក្នុងករណីមានអាសន្ន

# Жайкы аптапта ысыктан улам оорулардын алдын алуу боюнча колдонмо



## 1. Үч негизги эрежени сактаңыз

Сырттагы жумуш жерлери	Жабык жумуш жерлери
<b>Суу</b> ● Муздак жана таза суу менен камсыз кылыңыз / Жумуш учурунда үзгүлтүксүз суу ичиңиз	<b>Суу</b> ● Муздак жана таза суу менен камсыз кылыңыз / Жумуш учурунда үзгүлтүксүз суу ичиңиз
<b>Көлөкө</b> ● Жумуш орунунун жанында көлөкө (эс алуу зонасы) менен камсыз кылыңыз ● Көлөкө чатырлар салкын жел өтүүчү жерлерге жайгаштырылышы керек ● Зарыл болсо, кошумча мобилдик кондиционерлерди орнотуңуз	<b>Шамал</b> ● Жумуш ордунда температура жана нымдуулукту өлчөөчү приборлорду орнотуу жана аларды дайыма текшерип туруңуз ● Желдеткичтерди жана мобилдик кондиционерлерди орнотуп, дайыма желдетип туруңуз ● Түнкүсүн иштегенде да ички температураны башкаруу
<b>Тыныгуу</b> ● Ысыктык жөнүндө эскертүү (эскертүү, тынчсыздануу) берилгенде, кеминде 10-15 мүнөттүк үзгүлтүксүз тыныгууларды бериниз ● Эң жогорку температурада сыртта иштөөнү азайтыңыз (14-17)	<b>Тыныгуу</b> ● Ысыктык жөнүндө эскертүү (эскертүү, тынчсыздануу) берилгенде, кеминде 10-15 мүнөттүк үзгүлтүксүз тыныгууларды бериниз ● Эң жогорку температурада сыртта иштөөнү азайтыңыз (14-17)

## 2. Ысык апталарга жооп берүү

Эгерде ысыктан улам ооруп калуу коркунучу келип чыкса, жумуш берүүчүлөр же жумушчулар тарабынан ишти токтотуу

**Эскертүү же ысыктык жөнүндө тынчсыздануу**  
Сенсордук температура 35°C же андан жогору

- Ар бир саат сайын 15 мүнөттүк тыныгууларды бериниз
- Аптап ысып кеткен убакыттын ичинде сөзсүз түрдө сыртта иштөөнү токтотуу

**Коркунуч же ысыктык жөнүндө тынчсыздануу**  
Сенсордук температура 38°C же андан жогору

- Ар бир саат сайын 15 мүнөттүк тыныгууларды бериниз
- Аптап ысып кеткен убакыттын ичинде кыскартылган жана коопсуздукту башкаруу боюнча жумуштарды кошпогондо, ачык абада иштөөнү токтотуу

Сенсордук температура

**Жалпы шарттар**  
Сенсордук температура 31°C же андан жогору

- Жумушчуларга ысыктык тууралуу маалымат берүү
- Салкын суу жана көлөкө (эс алуу жайлары) жана жел менен камсыз кылыңыз
- Муздакты курал менен камсыз кылыңыз, мисалы, муздактыч колдун жеңдери ж.б.
- Жогорку интенсивдуу жумушчуларды жана сезимтал топторду башкаруу

**Эскертүү же ысыктык жөнүндө кеңештер**  
Сенсордук температура 33°C же андан жогору

- Ар бир саат сайын 10 мүнөттүк тыныгууларды бериниз
- Аптап ысып турган мезгилде сыртта иштөө убактысын кыскартыңыз же тууралаңыз

## 3. Ысыкка байланыштуу оорулар пайда болгон учурда чаралар

Ысыкка байланыштуу оорулар учурда дароо телефонга чалыңыз Өзгөчө кырдаалдарда байланышыңыз

# แนวทางการป้องกันโรคจากความร้อนใน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ช่วงฤดูร้อน



## 1. ปฏิบัติตามกฎพื้นฐานสามข้อ

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กลางแจ้ง	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ในร่ม
<b>น้ำ</b> ● จัดให้มีน้ำเย็นและสะอาด / ดื่มน้ำอย่างสม่ำเสมอระหว่างทำงาน	<b>น้ำ</b> ● จัดให้มีน้ำเย็นและสะอาด / ดื่มน้ำอย่างสม่ำเสมอระหว่างทำงาน
<b>ร่มเงา</b> ● จัดให้มีร่มเงา (บริเวณพักผ่อน) ใกล้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 ● หลังคาบังแดดควรอยู่ในบริเวณที่ลมเย็นพัดผ่านได้ ● ติดตั้งเครื่องปรับอากาศเคลื่อนที่เพิ่มเติมหากจำเป็น	<b>พัดลม</b> ● ติดตั้งเครื่องพัดลมและเพิ่มความชื้นใ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และตรวจสอบอย่างสม่ำเสมอ ● ติดตั้งพัดลมและเครื่องปรับอากาศเคลื่อนที่และระบายอากาศอย่างสม่ำเสมอ ● การจัดการอุณหภูมิภายในอาคารเมื่อบริษัททำงานในเวลากลางคืน
<b>เวลาพัก</b> ● จัดให้มีการพักผ่อนอย่างสม่ำเสมออย่างน้อย 10 ถึง 15 นาทีเมื่อมีการออกประกาศเตือนเรื่องความร้อน (ข้อควรระวังสัญญาณเตือน) ● ลดการทำงานกลางแจ้งในช่วงเวลาที่มีความร้อนสูงสุด (14-17)	<b>เวลาพัก</b> ● จัดให้มีการพักผ่อนอย่างสม่ำเสมออย่างน้อย 10 ถึง 15 นาทีเมื่อมีการออกประกาศเตือนเรื่องความร้อน (ข้อควรระวังสัญญาณเตือน) ● ลดการทำงานกลางแจ้งในช่วงเวลาที่มีความร้อนสูงสุด (14-17)

## 2. การพักงานของนายจ้างหรือจ้างงานที่มีอันตรายจากความร้อน

การพักงานของนายจ้างหรือจ้างงานที่มีอันตรายจากความร้อนที่ใกล้เข้ามา

**ค่าเตือนหรือสัญญาณเตือนความร้อน**  
อุณหภูมิทางประสาทสัมผัส 35°C หรือสูงกว่า

- ให้เวลาพัก 15 นาทีทุก ๆ ชั่วโมง
- การระงับการทำงานกลางแจ้ง ยกเว้นเมื่อไม่สามารถหลีกเลี่ยงได้ในเวลาที่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อันตรายหรือสัญญาณเตือนความร้อน**  
อุณหภูมิทางประสาทสัมผัส 38°C หรือสูงกว่า

- ให้เวลาพัก 15 นาทีทุก ๆ ชั่วโมง
- งดการทำงานกลางแจ้ง ยกเว้นงานบริหารจัดการที่บีบรัดและ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ในช่วงเวลาที่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อุณหภูมิทางประสาทสัมผัส

**เงื่อนไขทั่วไป**  
อุณหภูมิทางประสาทสัมผัส 31°C หรือสูงกว่า

- ให้ข้อมูลเรื่อง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แก่คนงาน
- จัดให้มีน้ำเย็นและร่มเงา (บริเวณพักผ่อน) และที่ที่มีลมผ่าน
- จัดหาอุปกรณ์ทำความเย็น เช่น พัดลมแบบทำความเย็น เป็นต้น
- การจัดการคนงานที่ทำงานหนักและกลุ่มที่มีความอ่อนไหว

**ข้อควรระวังหรือคำแนะนำเรื่องความร้อน**  
อุณหภูมิทางประสาทสัมผัส 33°C หรือสูงกว่า

- ให้เวลาพัก 10 นาทีทุก ๆ ชั่วโมง
- ลดหรือปรับเวลาการทำงานกลางแจ้งในช่วงเวลาที่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 3. มาตรการกรณีเจ็บป่วยจากความร้อน

โทรแจ้ง 166 ทันที หากเกิดกรณีเจ็บป่วยจากความร้อน ติดต่อได้ในกรณีฉุกเฉิน

# موسم گرما میں ہیٹ ویو سے متعلق بیماریوں کی روک تھام سے متعلق رہنما اصول



## 1. تین بنیادی اصولوں پر عمل کریں

بیرونی کام کی جگہ	اندرونی کام کی جگہ
<b>پانی</b> ● کام کے دوران باقاعدگی سے پانی پئیں	<b>پانی</b> ● ٹھنڈا اور صاف پانی فراہم کریں
<b>سایہ</b> ● کام کی جگہ کے قریب سایہ (آرام کی جگہ) فراہم کریں ● سایہ دار کنوپیوں ان علاقوں میں واقع ہونی چاہئیں جہاں سے ٹھنڈی ہوا گزرے ● اگر ضرورت ہو تو اضافی موہائل ایئر کنڈیشنر انسٹال کریں	<b>پھوا</b> ● کام کی جگہ پر درجہ حرارت اور نمی کے میٹر نصب کریں اور انہیں باقاعدگی سے چیک کریں ● پنکھے اور موہائل ایئر کنڈیشنر نصب کریں اور باقاعدگی سے ہوا دار کریں ● رات میں کام کرنے وقت بھی گہرے اندر درجہ حرارت کا انتظام کرنا
<b>تور</b> ● گرمی کی ایڈوائزری (احتیاط، آرام) جاری ہونے پر کم از کم 10 سے 15 منٹ کا باقاعدگی سے وقفہ فراہم کریں ● شدید گرمی کے اوقات کے دوران بیرونی کام کو کم سے کم کریں (14-17)	<b>تور</b> ● گرمی کی ایڈوائزری (احتیاط، آرام) جاری ہونے پر کم از کم 10 سے 15 منٹ کا باقاعدگی سے وقفہ فراہم کریں ● شدید گرمی کے اوقات کے دوران بیرونی کام کو کم سے کم کریں (14-17)

اگر گرمی سے متعلق بیماری کی فوری خطرہ ہو تو آجروں یا کارکنوں کی طرف سے کام کی معطلی

## 2. ہیٹ ویو کا جواب دینا

**انتباہ یا ہیٹ الارم**  
حسی درجہ حرارت 31 ڈگری سینٹی گریڈ یا اس سے زیادہ

- ہر گھنٹے میں 15 منٹ کا وقفہ فراہم کریں
- ہیٹ ویو کے دوران باہر کام کی معطلی سوائے اس وقت کے جب یہ ناگزیر ہو

**خطرہ یا ہیٹ الارم**  
حسی درجہ حرارت 38 ڈگری سینٹی گریڈ یا اس سے زیادہ

- ہر گھنٹے میں 15 منٹ کا وقفہ فراہم کریں
- گرمی کی لہر کے وقت کے دوران ڈیزاسٹر اور سیفی منجمنٹ کے کاموں کے علاوہ باہر کام کی معطلی

حسی درجہ حرارت

**عام حالات**  
حسی درجہ حرارت 33 ڈگری سینٹی گریڈ یا اس سے زیادہ

- کارکنوں کو ہیٹ ویو سے متعلق معلومات فراہم کرنا
- ٹھنڈا پانی اور سایہ (آرام کی جگہ) اور ہوا فراہم کریں
- کولنگ کا سامان فراہم کریں جیسے بازو کی آستین کو ٹھنڈا کرنا وغیرہ
- زیادہ شدت کے کارکنوں اور حساس گروپوں کا انتظام

**احتیاط یا گرمی کی ایڈوائزری**  
حسی درجہ حرارت 33 ڈگری سینٹی گریڈ یا اس سے زیادہ

- ہر گھنٹے میں 10 منٹ کا وقفہ فراہم کریں
- ہیٹ ویو کے وقت کے دوران بیرونی کام کے وقت کو کم یا ایڈجسٹ کریں

## 3. گرمی سے متعلق بیماری کی صورت میں اقدامات

گرمی سے متعلق بیماری کی صورت میں فوری طور پر 166 پر کال کریں ہنگامی صورت حال میں رابطہ کریں



다문화가족 위한 교육정보 전달해요~

###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교 진학과정설명회 개최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학령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고등학교 진학과 결혼이민자의 자녀 교육 관련 정보획득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14일 진학과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약 20명 내외의 학령기 다문화가족 부모 및 자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고등학교 진학부터 자녀의 학교생활, 학교폭력 대처법 등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다문화가족에 맞추어 진행했다. 특히 지역사회 현직 교사가 직접 설명회를 진행해 고등학교 진학 및 생활에 대한 참여 가족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유경선 센터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입시 관련 정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 수원시, 2025 시민과 함께 하는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수원시는 6월 25일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손수진 전문강사가 진행하였으며, ‘이해의 나비효과’라는 주제로 다문화 수용성 향상과 다문화사회 속에서의 시민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폭넓게 다루었다.

손 강사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 이해 ▲다문화·다문화 사회 변화에 대한 고찰 및 한국의 다문화 현황 ▲다문화수용성의 정의와 사례 ▲다문화수용 필요성과 시민의 역할과 과제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일상 속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편견을 조명하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현실을 되짚어보며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참석자들은 강의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실천 방향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원시가 지향하는 다문화 포용도시의 가치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 필요한 공감 능력과 수용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031-228-2994 송하성 기자

##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위한 생활안전 금연 및 범죄예방교육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윤영민 요셉 신부)는 지난 6월 16-27일 2주간 센터 이용자 약 100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및 금연,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센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및 비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소 연 3회 이상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에는 소방·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생활안전교육은 총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교육했다. 한국환경보전원, 수원소방서, 경기남부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교육영상을 활용하여 ▲환경보호영역(올바른 쓰레기 배출법, 분리배출,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친환경제품사용) ▲범죄예방영역(청소년마약, 도박, 딥페이크 성범죄, 보이스피싱, 성폭력, 투자리딩) ▲소방안전영역(소방안전상식) ▲생활영역(충간소음예방)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안전교육 분야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는 교육과 생활 속 충간소음 예방 교육을 추가로 진행했다.

또한 6월 27일에는 이주배경청소년 총 80명에게 금연 및 범죄(보이스피싱, 마약)예방 교육을 추가 진행했다.

한국 입국 초기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본국과 한국

간 법규의 차이로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전달책, 마약 유통 등 범죄에 따르는 처벌과 함께 센터 이용 규칙 준수와 미준수 시 조치사항 등 준법정신 함양을 유도했다.

윤영민 요셉 센터장은 “안전 교육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번 교육이 한국 입국 초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범죄인지 몰랐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안 걸리겠지’하며 안일하게 생각한 친구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사례관리 실천을 기반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교육, 심리·정서, 자립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역량을 계발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swglobalyouth.com) ‘프로그램 안내’ 탭 확인 또는 031-247-1324로 문의하시면 친절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수원 인근의 이주배

경청소년들의 복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2025년 찾아가는 글로벌

한국어를  
사랑하는  
시민이 됩시다

TOPIK이 필요할 땐, 글로벌이 찾아갑니다

## 똑똑!한국어

모집기간	25년 6월 25일(수) ~ 7월 16일(수)
모집대상	TOPIK 대비 교육이 필요한 17세 이상 이주민
모집인원	총 12명 (선착순 접수)
운영기간	25년 7월 21일(월) ~ 8월 14일(목)
운영시간	매주 월-금(주 5회) 14:00~16:00 [총 19회기]
운영장소	작은도서관 내비 세미나실(망포동 소재)
운영내용	한국어토픽II (3~6급) 대비 수업 운영
신청방법	전화 신청 또는 하단 QR코드 접속 신청
신청문의	070-4125-3309 정착지원팀 손주영

재단법인 원주교육연구원 후원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신나는 여름방학 즐거운 프로그램, 오산시가족센터와 함께 해요”

## 여름특강 진로학습 컨설팅, 진로 설계 집단상담, 아빠랑 드론 탐험대 등 프로그램 운영

### #여름특강 진로.학습 컨설팅

오산시가족센터는 2025년 진로설계지원사업으로 ‘여름특강 진로.학습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면-유선 상담을 통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을 편안하게 상담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여름특강 진로.학습 맞춤형 컨설팅은 다문화가족 자녀 중 중2~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컨설팅은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6회기 진행된다. 개별상담도 1회 포함될 예정이다. 장소는 오산시가족센터 프로그램 2,3실, 상담실 등이며, 신청은 7월 11일까지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osan.famailynet.or.kr)에서 받는다. 참여 대상자는 7월

14일 오후 4시 이후 개별 안내된다. 070-4336-0429

### #‘친구랑 톡! 표현력 쑥!’

오산시가족센터는 2025년 진로설계 지원사업으로 집단상담 ‘친구랑 톡! 표현력 쑥!’을 진행한다.

‘친구랑 톡! 표현력 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면-유선 상담을 통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을 편안하게 상담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다.

다문화.외국인.난민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1~6학년 12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월, 수, 금 총 8회기 운영된다. 장소는 오산시가족센터 프로그램 1실(B1)이며, 7월 18일까지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서 신청받는다. 070-4336-0429

### #‘아빠가 빛나는 학교’

오산시가족센터는 ‘2025년 아빠가 빛나는 학교-아빠랑 드론 탐험대’를 오는 7월 5일 오전 1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 양육과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소통과 공동양육에 대한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다.

‘아빠랑 드론 탐험대’는 꿈두레도서관 1층, 제2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되며, 오산시 관내 거주 자녀와 아버지(자녀 2인 이상 시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참여 가능)를 대상으로 한다.

아버지와 자녀 1팀으로 드론 조립 및 드론 시연(탐당 드론 1개 배정)이 이뤄지며, 신청은 7월 4일까지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서 받는다. 참여 가족 구성원 모두 회원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 070-4336-1405

김영의 기자

## 영화 관람하며 가족사랑도 키워가요...오산시가족센터, 가족애 프로그램 진행



오산시가족센터는 지난 6월 21일 ‘온가족보듬사업- 가족애(愛) 프로그램’ 3회차를 진행했다. 이번 회차는 온가족이 함께 디즈니 애니메이션 <릴로&스티치>를 관람

하며 영화 속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시간으로 마련됐다. ‘가족애(愛) 프로그램’은 가족 간 유대감 형성과 정서적 친밀감 증진을 위한 문화 활동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이 함께 여유를 즐길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보호자는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정말 좋았다”라며 “다자녀 가정으로서 평소 부담을 느꼈던 문화생활을 누릴 소중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산시가족센터 관계자는 “가족애(愛) 프로그램은 위기가족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기능 회복을 돕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가족 중심의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더욱 풍성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가족센터 가족애 프로그램은 가족의 소통, 협력, 정서적 안정 등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구성돼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온가족보듬사업의 핵심 가치인 ‘가족 중심의 돌봄과 회복’을 실현하는 소중한 장이 될 전망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지원 진로설계지원사업

### 여름방학특강 친구랑 톡! 표현력 쑥!

- 아이의 사회성·표현력을 키우는 무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

표현이 서툴거나 친구 관계가 어려운 우리 아이, 상담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는 힘을 키워봐요~!

모집기간 6/16(월)10:00~7/18(금)18:00까지 (선착순 모집)

모집대상 다문화·외국인·난민가족자녀 초등학교 1~6학년 12명

진행일정 7/25(금)~8/13(수)10:00~12:00 (주 3회, 8회기)

진행내용 협동게임과 다양한 미술놀이를 통한 사회성 향상 및 스트레스 해소법 배우기

진행장소 오산시가족센터 지하1층 프로그램 4실

신청방법 센터홈페이지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QR

가족지원 2팀 ☎ 070-4336-0429

경기도 2025년 경기육아나눔터

### 부모교육 &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

1회차 7/23(수) 10시~12시 "정서지능 높이는 부모의 언어" \*부모(엄마,아빠)만 참여\*

2회차 7/23(수) 16시~18시 "캐릭터 케이크 클래스" \*부모와 자녀가 함께\*

★ 부모교육 참여자에 한해 베이킹클래스 참여 가능

대상 관내 초등 3학년이하 자녀 및 부모님 8가족

모집기간 6월 23일 ~ 7월 11일 17시까지 (확정자 개별 안내)

장소 경기육아나눔터 (내삼미로 109, 1608동 1층)

신청방법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참가비 무료

문의 031-376-3427

부모교육QR 베이킹QR

다문화가정지원 진로설계지원사업

### 여름방학특강 진로·학습 맞춤형 컨설팅

- 무료로 전문가와 함께 진로 방향도 잡고 공부법도 찾는 특별한 시간 -

① [고교학점제 시대] 함께 알아보는 학습전략

모집기간 6/16(월)10:00~7/11(금)18:00까지 (선착순 모집)

모집대상 다문화가족자녀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1학년 10명

진행일정 7/29(화)~8/12(화) 10:30~12:30 (매주 화/목, 총 6회기)

진행내용 1. MLST 학습유형검사를 활용해 개인별 최적의 학습 전략 찾기  
2. 고교학점제 이해를 기반으로 고등학교 및 대학 진로 선택 지원  
3. 학습·진학전문가 피드백(개별 1회 상담 포함)

진행장소 오산시가족센터 지하1층 프로그램 2,3실

신청방법 센터홈페이지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고교학점제 시대] 함께 알아보는 학습전략 신청 홈페이지 URL 코드

가족지원 2팀 ☎ 070-4336-0429

## 부모교육 및 베이킹 클래스 운영

오산시가족센터 경기육아나눔터는 오는 7월 23일 ‘부모교육’ 및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핵가족화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가 육아나눔터를 통해 육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녀는 또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오산시 거주 만3세~ 만9세 자녀 및 부모(동시 수강 가능자만 접수 가능)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와 부모 8팀을 7월 11일까지 모집한다. 부모교육은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아동의 뇌 발달을 이해하고 말 속에 숨은 메시지를 찾아 아이의 정서 지능을 높이고 부정적 표현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원하는 캐릭터를 골라 토퍼를 만들고 직접 아이싱하여 나만의 캐릭터 케이크를 만드는 활동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장소는 경기육아나눔터(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109, 1608동 1층)다. 031-376-3427 김영의 기자

## ‘언제나 돌봄’ 다문화가족도 이용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이 같은 양육 현실을 반영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야간까지 돌봄 공백을 채우는 ‘아동 언제나(긴급)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 언제나(긴급)돌봄 서비스’는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며, 주중.주말 구분 없이 연중무휴 신청이 가능하다. 6~12세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소득이나 가정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이 필요

한 시간에 맞춰 이용할 수 있다. 한 번만 사전 아동 등록을 해주면 이후에는 원하는 시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돌봄이 닿기 어려웠던 야간.주말 시간대를 보완하고, 돌봄 자원이 부족한 가정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서비스 신청은 경기도 아동언제나돌봄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문의 070-8209-6469

김영의 기자

## Создаём атмосферу социального единства через видеоконкурс!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проводит «1-й конкурс видеоконтента кампании “Кёнгидо, развивающийся вместе с мигрантами”» до 18 июля.

Этот конкурс организован с целью повысить осведомленность жителей о миграционном обществе и сформировать атмосферу социального единства, в которой сосуществуют различные культуры. Изначально приём заявок должен был завершиться 20 июня, но срок продлён до 18 июля.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могут как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участники, так и команды (от 2 до 5 человек),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в теме интеграции мигрантов в общество, включая иностранцев (в том числе натурализованных граждан).

Тема конкурса — «Кёнгидо, развивающийся вместе с мигрантами: интеграция и гармония миграционного общества»,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можно с любым контенто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этой теме.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в двух номинациях:

△ «Социальная реклама в формате шорт-видео» — видеоролики с социальным посылом, раскрывающие тему конкурса;

△ «Истории и впечатления в формате видеоэссе» — видео с личными историями, например, рассказами о стране и семье, истории приезда в Корею, текущей жизни и будущем, мечтах и целях.

Победители, выбранные по итогам оценки, получают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15 миллионов вон призового фонда и грамоты от губернатора Кёнгидо. Награды включают: △ Гран-при (2 участника) — по 3 млн вон △ Первая премия (2 участника) — по 2 млн вон △ Вторая премия (2 участника) — по 1 млн вон △ Поощрительные призы (6 участников) — по 500 тыс. вон.

Один участник не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несколько наград — будет учитываться только работа с наивысшей оценкой.

Для участия необходимо отправить заявку на конкурс, сам видеоматериал, согласие на обработку данных и подписанное обязательство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bravo8032@gg.go.kr).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формы можно скачать в разделе «Ток» на сайте Paraya Story.

З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Отдел поддержки миграционного обществ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тел. 031-8030-4682).

Ким Вон Гю, глава отдела миграционного общества Кёнгидо, отметил: «Через социальную рекламу и личные истории мы планируем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диалог между мигрантами и мест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Надеюсь,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конкурсу будет выявлено множество качественного контента, способного вдохновить позитивные изменения в миграционном обществе».

SNS-редакция иностранцев в Кёнгидо (Paraya Story — оператор редакции 2025 года) <한글 기사 5면>

**오산시가족센터 - 드론체험**

# 아빠와 드론 탐험대

**25.07.05(토) 10시~12시**  
꿈두레도서관 1층, 문화강좌 제2실

**수강신청**

- 06.23(월) 10:00 ~ 07.04(금) 17:00
- 선착순 20명(아버지,자녀)
- 오산시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

**교육대상**

- 오산시 거주 아버지와 자녀 (취학)
- 2018~2013 출생 자녀
- 자녀 2인 이상 참여시 어머니 참여 가능

**유의사항**

- 참가가족 구성원 모두 회원가입 후 신청
- 오산시가족센터 프로그램 신청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오산시가족센터  
OSANSI FAMILY CENTER

위탁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 다양한 가족, 즐거운 관계 향상 구리시가족센터, 6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 진행

구리시가족센터(센터장 윤성은)는 지난 6월 18일, 센터 대교육장에서 2025년 6월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우리 가족 사랑의 시계 만들어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가족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날 활동은 구리시 거주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원목공예 체험을 하며 가족 내 의사소통의 원활함과 관계 향상을 도모했다.

구리시가족센터는 2025년에도 12월까지 다양한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자료 구리시가족센터

### 구리 '부모와 아이, 전통놀이를 소통한다'

구리시가족센터(센터장 윤성은)는 오는 7월 12일(토) '신나는 소통: 부모와 아이, 전통 놀이로 소통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구리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10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 놀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다양한 전통 놀이를 함께 즐기며 가족 간 즐겁게 교감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청은 6월 23일(월)부터 구리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가족구성원 모두 홈페이지에 가입 후 신청

완료한 가족에 한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단, 신규 가정을 우선 선정한다. 윤성은 구리시가족센터장은 "다양한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와 원활하고 긍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구리시의 다양한 가족이 함께 가족 친화적 문화를 만들어 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한 도시, 구리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가족센터 운영&특성화팀(☎070-8895-9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 "어린이 생태 감수성 UP!"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12월까지 갈매구릉산 자락길 유아숲체험원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 다양한 생태 체험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유아숲체험원은 작년 12월 조성을 완료하고 올 4월 지역 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유아숲 체험 장소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프로그램은 3세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전문 자격을 갖춘 유아숲지도사가 상주해 계절별 맞춤형 교육과 놀이 활동을 지도한다.

이 외에 오는 7월부터는 가족이 함께 숲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며, 구리시통합예약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우리 시의 어린이들이 숲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다양한 동식물을 직접 관찰하면서, 신체 발달과 면역력 증진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참여 관련 정보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 공원녹지과 산림복지팀(☎031-550-290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 아동기 자녀와 함께하는 집단미술프로그램

"함께 키우는 마음나무 만들기"  
(협동작업을 통한 가족의 유대감 증진 프로그램)

- 모집대상: 아동기 자녀를 둔 가정 15가정 (자녀와 함께 참여 - 한 가정당 2명), 선착순 무료
- 모집기간: 6월 25일(수)~7월 9일(수)
- 진행일정: 7월 12일(토) 10:00~12:00
- 진행장소: 아차산로 453-1 여성행복센터 5층 교육장1
- 신청방법: 구리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 아동기 자녀와 함께하는 집단미술 프로그램 "함께 키우는 마음나무 만들기" 클릭 부모와 자녀(2명) 모두 신청
- 문의: 031-557-3874

구리시가족센터 GURI FAMILY CENTER

### 1인가구지원사업 건강돌봄프로그램

## 따뜻한 숨결이 담긴 요가 [따숨요가]

- 모집대상: 구리시 거주 40~59세 1인가구
- 모집기간: 2025년 07. 14(월) ~ 07.30(수)
- 활동날짜: 2025년 08.02(토)~08.30(토) 매주 토요일 / 5회기
- 활동내용: 요가 활동을 통한 중장년기 1인가구의 신체적 건강 증진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 신청방법: QR 접속 후 가족센터 로그인 "따숨요가" 신청하기 클릭!
- 문의: 가족사업팀 070-7776-2978

구리시 구리시가족센터

### 부부 특성화 지원사업

## 함께하는 부부 집단상담

집단상담과 활동으로 배우자를 이해하고 안정적인 부부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모집대상: 구리시 거주 다양한 부부 12명 ※당당 중 12세 이하 자녀를 돌볼 가능!
- 모집기간: 2025.06.12 ~ 2025.07.02
- 활동날짜: 2025.07.05~07.26 매주 토요일 10:00 ~ 12:00 / 4회기
- 신청방법: QR코드 접속 후 로그인, 인성하기 ※꼭 부부가 함께 인성!
- 문의: 가족사업팀 070-7776-2978

구리시 구리시가족센터

## Văn hóa sử dụng xe cấp cứu 119 đúng cách—Cư dân nước ngoài cũng cùng chung tay...Kêu gọi sự hợp tác của cư dân nước ngoài.

Cơ quan Phòng cháy chữa cháy Hàn Quốc (do ông Heo Seok-gon làm Tổng cục trưởng) đang triển khai chiến dịch "Lan tỏa văn hóa sử dụng xe cấp cứu 119 một cách đúng đắn" nhằm đảm bảo thời gian vàng cứu chữa cho bệnh nhân cấp cứu và giảm thiểu việc lãng phí lực lượng cứu hộ không cần thiết.

Thông qua chiến dịch lần này, Cơ quan Phòng cháy chữa cháy muốn truyền đạt đến người dân và cư dân nước ngoài ba nội dung chính như sau:▲ Hạn chế gọi xe cấp cứu không khẩn cấp một cách bừa bãi▲ Chấm dứt hành vi bạo hành nhân viên cấp cứu 119▲ Tôn trọng việc lựa chọn bệnh viện của nhân viên cấp cứu Chúng ta cùng tìm hiểu kỹ hơn nhé?

### Hạn chế gọi cấp cứu không khẩn cấp một cách bừa bãi

Có trường hợp khi thấy có người bệnh, người ta gọi 119 vì xe cấp cứu sẽ đến tận nhà, dù bệnh nhân không thuộc diện cấp cứu.

Một số người thậm chí chỉ bị đau răng hoặc cảm cúm nhẹ nhưng vẫn gọi 119 yêu cầu gửi xe cấp cứu. Đây thực sự là hành động khó chấp nhận. Xe cấp cứu luôn phải sẵn sàng cho các trường hợp khẩn

cấp nghiêm trọng như ngừng tim, đột quy, nhồi máu cơ tim hay chấn thương nặng. Nếu gọi xe cấp cứu vì những lý do không chính đáng, người bệnh đang trong tình trạng nguy kịch có thể rơi vào tình thế nguy hiểm.

### Chấm dứt bạo hành nhân viên cấp cứu 119

Nhân viên cấp cứu 119 đang làm việc rất chăm chỉ để bảo vệ tính mạng và an toàn cho người dân. Tuy nhiên, gần đây thỉnh thoảng lại xảy ra những vụ việc hành hung hoặc cản trở hoạt động của họ.

Theo số liệu thống kê của Cơ quan Phòng cháy chữa cháy, trong 5 năm gần đây đã xảy ra tổng cộng 1.185 vụ hành hung nhân viên cấp cứu, trung bình mỗi năm có khoảng 309 nhân viên bị hại. Con số quá lớn khiến tôi thực sự bất ngờ.

Hành vi hành hung nhân viên cấp cứu là một tội phạm nghiêm trọng trong xã hội, vì nó làm giảm tinh thần làm việc của họ, cản trở hoạt động cứu hộ và có thể dẫn đến suy giảm chất lượng dịch vụ cấp cứu. Những hành vi như vậy thường do người say rượu gây ra, và cần phải ghi nhớ rằng theo Luật Cơ bản về Phòng cháy chữa cháy của Hàn Quốc, những người có hành vi này có thể bị xử phạt nặng.

### Tôn trọng việc lựa chọn bệnh viện của nhân viên cấp cứu

Khi có bệnh nhân nguy kịch được đưa lên xe cấp cứu, nhân viên cấp cứu sẽ lựa chọn bệnh viện chuyển viện sau khi xem xét tổng hợp các yếu tố như mức độ nghiêm trọng của triệu chứng, khoa khám bệnh có phù hợp hay không, khả năng thực hiện xử lý và thủ thuật, cũng như thông tin giường bệnh của phòng cấp cứu theo thời gian thực.

Tuy nhiên, một số bệnh nhân hoặc người nhà yêu cầu rằng "Hãy đưa đến bệnh viện gần nhà nhất", "Chúng tôi quen bác sĩ ở bệnh viện ○○", "Nhất định phải đưa đến bệnh viện lớn"... Đây là hành động không tin tưởng vào phán đoán chuyên môn của nhân viên cấp cứu và khăng khăng làm theo ý mình. Trong tình huống nguy cấp, chúng ta cần tôn trọng quyết định của nhân viên cấp cứu về việc đưa đến bệnh viện nào.

Cư dân nước ngoài cũng nên tham gia chiến dịch lần này và động viên các nhân viên cấp cứu, những người đang nỗ lực hết mình để bảo vệ tính mạng con người trong những tình huống khó khăn.

<한글 기사 2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119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машины зөв зохистой хэрэглээний соёлыг, гадаадын иргэдийн хамт бүтээцгээе...올바른 119 구급차 이용 문화, 이주민도 함께

Онцгой байдлын ерөнхий газар (Захиргааны дарга: Хо Сок Гон) яаралтай тусламж хэрэгтэй өвчтөний алтан цагийг хамгаалж, шаардлагагүй нөөцийн алдагдлыг багасгахын тулд "119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машины зөв хэрэглээний соёлыг түгээх аян" өрнүүлж байна.

Энэхүү кампанит ажлаар Онцгой байдлын ерөнхий газраас иргэд болон гадаадын оршин суугчдад дараах 3 зүйлийг анхааруулж, уриалж байна. Үүнд: ▲Яаралтай бус шалтгаанаар 119-д хамаагүй дуудлага өгөхөөс татгалзах, ▲119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ажилтнуудад гар хүрэх, хүч хэрэглэж дайрахыг таслан зогсоох, ▲Өвчтөнд тохирсон эмнэлгийг сонгох талаар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багийн шийдвэрийг хүндэтгэх. Эдгээр нь юуг хэлээд байгаа талаар одоо дэлгэрэнгүй мэдэж авцгаая!

### Яаралтай биш тохиолдолд 119-д хамаагүй дуудлага хийхээс татгалзах

Өвчтэй хүн байгаа гэж 119-т мэдэгдэл өгвөл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машин шууд гэрт нь ирдэг учраас зарим хүмүүс яаралтай биш мөртлөө дуудлага өгдөг тохиолдол бий. Зарим хүн энгийн шүд өвдөх, ха

ниад хүрэх зэрэг хөнгөн шинж тэмдэгтэй байсан ч 119 дугаарт залгаж,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машин илгээхийг шаарддаг байна. Энэ бол үнэхээр байж бол омгүй зүйл юм. 119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машин нь зүрхний зогсолт, тархины цус харвалт, зүрхний шигдээс, хүнд хэлбэрийн гэмтэл гэх мэт ноцтой яаралтай өвчтөнүүдийн төлөө үргэлж бэлэн байдалд байх ёстой. Гэтэл ийм жижиг асуудлаар дуудлага өгөх нь үнэхээрийн шаардлагатай өвчтөн аюулд орох эрсдэлтэй болгодог.

### 119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ажилтанд хүч хэрэглэн халдахыг таслан зогсоох

119-ийн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ажилтнууд иргэдийн амь нас, аюулгүй байдлыг хамгаалахын тулд үнэхээр хичээнгүйлэн ажиллаж байдаг. Гэвч сүүлийн үед эдгээр ажилтнуудад хүч хэрэглэж халдах, ажил үүргийг нь саад хийх тохиолдол хааяа гарсаар байна.

Онцгой байдлын ерөнхий газрын статистик мэдээгээр сүүлийн 5 жилийн хугацаанд нийт 1,185 удаагийн халдлагын тохиолдол бүртгэгдсэн бөгөөд жил дунджаар 309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ажилтан ийм

төрлийн хохирол амсаж байгаа нь тогтоогджээ. Энэ нь хэтэрхий олон тохиолдол бөгөөд үнэхээр гайхмаар.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багийн ажилтанд халдах нь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ажилтнуудын урам зоригийг могоож, аврах ажиллагааг сааруулж,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үйлчилгээний чанар буурахад хүргэж болзошгүй ноцтой нийгмийн гэмт хэрэг юм. Ийм үйлдлийг гол төлөв согтууруулах ундаа хэрэглэсэн хүмүүс үйлддэг бөгөөд, Онцгой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ийн дагуу хатуу шийтгэл хүлээж болохыг заавал санах хэрэгтэй.

###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ажилтны эмнэлэг сонгох шийдвэрийг хүндэтгэх

Яаралтай өвчтөн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машинд усны дараа, түргэн тусламжийн багийнхан тухайн өвчтөний шинж тэмдэг, өвчний хүндийн зэрэг, шаардлагатай эмчилгээний төрөл, тухайн эмнэлэгт эмчилгээ, хагалгаа хийх боломж байгаа эсэх, мөн шууд эмнэлэг хүлээж авах боломжтой эсэх зэрэг олон хүчин зүйлийг цогцоор нь авч үзэн шилжүүлэн хүргэх эмнэлгийг сонгодог...<중략, 한글 기사 21면>

## “남양주의 풍부한 문화유산과 교육 및 복지 서비스를 누리요”

### 남양주시, 대입 컨설팅 참가자 모집·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지역 문화유산 '공집' 공개 등



#### 대입 수시 전략컨설팅 모집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관내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대비 1:1 전략컨설팅' 참가자를 7월 3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입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전형 유형별 맞춤형 진학 전략을 제공하고, 1:1 진학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시 지원 전략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컨설팅은 8월 1일, 2일, 8일, 9일 총 4일간 정약용도서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일반전형은 물론 농어촌전형까지 구분해 실질적인 전략

을 제시하며,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이 컨설팅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선 배정을 진행한다. 아울러 예체능 계열 진학 희망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도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남양주시 인재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시스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최진희 미래교육과장은 “해마다 복잡해지고 있는 대입 수시 전형에서 지역 수험생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컨설팅을 마련했다”며 “농어촌전형, 예체능 전공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더욱 정밀하고 실질적인 진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31-590-1468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확대

남양주시는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당초 80대였던

전기이륜차 보급 계획을 125대로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물량을 늘렸다.

이번 보급사업은 남양주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의 개인 및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차종별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본 보조금과 별개로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30만 원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에게는 국비지원액의 20% △배달 사용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에 지원서류를 등록해 신청할 수 있다. 031-590-2610

남양주 공집, 새롭게 개방

남양주시는 6월 20일 '남양주 공집 관람환경 조성사업 주차장 준공 기념행사'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공집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방문객이 공집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남양주 공집은 조선의 21대 임금 영조가 시집가는 막내딸 화길옹주를 위해 궁에서 대목장과 재목을 보내 지어준 집으로, 1984년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2019년 남양주시에 기부채납되면서 주변 정비를 시작해 올해 주차장 조성 공사까지 마무리됐다.

공집은 올해 말까지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며, 관람은 무료다. 한편, 남양주시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고택·종가집 활용사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가을밤의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야행 프로그램도 개최할 예정이다.

송하성 기자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습·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2차 - 2025. 7. 1.(화) ~ 7. 7.(월) 18:00까지  
※ 선착순 30명 모집  
※ 예산 미소진시 기간 연장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대한민국 국적)  
2007. 1. 1. ~ 2018. 12. 31. 출생자  
※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 1차(5월) 선정자 신청 불가
- 지원내용**  
교육활동비(NH농협 카드포인트) 연1회 지원  
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  
※ 결정통보 및 지급시기 - 8월(7월 신청자)
- 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참 후 남양주시가족센터 방문 신청(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 문의** 031-556-8211~2, 553-8211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센터로 전화주시거나 홈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 지원 코딩 진로체험 '코딩놀이'

2025. 7. 29(화) ~ 31(목) 10:00 ~ 12:00

-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초등학교 1~3학년  
\*다문화·외국인·난민가족 자녀 참여가능
- 내용** 엔트리 코딩 배우기, 코딩 동화·게임 만들기
- 장소** 남양주2청사 B1(한국폴리텍대학 컴퓨터실)
- 문의** 031.556.8211 (가족생활팀)
- 신청** QR코드 스캔 후 신청

m.site.naver.com/TKMFy

## 해외로 나가는 경기 청년, 더 폭넓은 기회의 장이 열렸다

경기청년 기후행동 해외봉사자 200명 모집...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은 출발!

### 경기청년 기후행동 해외봉사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더 폭넓은 기회의 장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기후행동 해외봉사에 참여할 청년 200명을 7월 8일까지 모집해요. '경기청년 기후특사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기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나무 심기, 조림지 정비, 환경교육 등 기후위기 대응 봉사활동 위주로 진행돼요.

경기도는 8월에 3개국(몽골, 키르기스스탄, 필리핀)에 120명을, 10월에 2개국(캄보디아, 라오스)에 80명을 파견할 예정이에요.

참여자에게는 항공, 숙박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일체가 지원돼요. 참여 대

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봉사 활동이 가능한 청년이에요. 외국인도 지원할 수 없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에서 할 수 있어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7월 21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합격자는 소양 교육과 팀별 현지 활동 계획수립을 파견 전까지 완수한 후 국가별로 8월과 10월 중 약 3주간 현지로 파견돼 봉사활동을 하게 돼요. 자세한 사항은 카야인터내셔널(070-5121-2198)로 문의하면 돼요.

###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3기 참가자 338명이 6월 말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8개국 12개 대학으로 출발해요.

경기도는 21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3기' 발대식을 열고, 338명 청년의 세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응원했어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더 고른 기회'를 위한 민선8기 대표 청년 정책으로, 국내외 연수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고 진로 탐색의 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해요.

올해 3기는 16.7대 1의 경쟁률을 뚫은

338명이 최종 선발됐어요. 이들은 오는 6월 30일부터 ▲미국(미시간대, 버팔로대, 워싱턴대, UC얼바인 등) ▲캐나다(UBC) ▲호주(시드니대, 퀸즐랜드대 등) ▲영국(에든버러대) ▲프랑스(그르노블 알프스대) ▲스페인(알칼라대) ▲싱가포르(국립대) ▲중국(북경대) 등 8개국 12개 대학에서 연수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경기청년들이 해외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만큼, 열정있는 경기도 청년들이 많이 도전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고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나은 청년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어요. <중국어 3면, 러시아어 13면, 영어 23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Для молодёжи Кёнгидо открываются более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за рубежом 경기 청년에게 열린 다양한 기회, 활용해요

Климатическая волонтерск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молодёжи Кёнгидо за рубежом

Вы знали, что для молодёжи, проживающей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ткрываются ещё более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объявила набор 200 молодых людей,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волонтерской программе по климатическим действиям за рубежом. Приём заявок продлится до 8 июля.

«Климатическая делегация молодёжи Кёнгидо» была созда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Ким Дон Ён и направлена на устранение климатического неравенства. Программ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посадку деревье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лесных участков, экологическ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другие волонтер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борьбе с климатическим кризисом.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августе 120 участников будут направлены в три страны (Монголия, Кыргызстан, Филиппины), а в октябре 80 человек — в две страны (Камбоджа, Лаос).

Участникам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о п

ол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включая перелёт, проживание и питание. Претендовать на участие могут молодые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от 19 до 39 лет,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в Кёнгидо на момент публикации объявления, без препятствий для получения визы и готовые к волонтер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за границей. Иностранцы участвовать не могут, однако участие молодёж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риветствуется.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онлайн через портал Jobaba Apply (apply.jobaba.net). После подачи заявок будет проведён отбор на основе документов и собеседования. Итоги будут объявлены 21 июля.

Прошедшие отбор кандидаты пройдут курс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и разработают командные планы действий, после чего будут отправлены в указанные страны на 3 недели в августе или октябре. З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Kaya International по телефону 070-5121-2198.

Программа "Лестница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молодёжи Кёнгидо

338 участников третьего набора программы "Лестница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молодёжи Кёнгидо,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сокращение социального неравенства и поддержку карьерных поисков через обучение за рубежом, отправятся в конце июня на стажировки в 12 университетов в 8 странах, включая США, Канаду и Австралию.

21 июня в зале Тасан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ёнгидо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отправки участников «3-й программы Лестницы возможностей», на которой власти пожелали молодёжи успешного старта на пути к глобальному опыту.

Программа «Лестница возможностей» — ключевая инициатива 8-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более рав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Её цель — устранение разрыва в доступе к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опыту и расширение горизонтов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для молодёжи.

В этом году конкуренция составила 16,7 человек на место, 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тбора было выбрано 338 участников. С 30 июня они начнут обучение в университетах США (Мичиган, Баффало, Вашингтон, UC Irvine и др.), Ка

нады (UBC), Австралии (Сидней, Квинсленд),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Эдинбург), Франции (Гренобль-Альпы), Испании (Алькала), Сингапура (Национ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Китая (Пекин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 всего в 12 университетах 8 стран.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Ким Сон Чжун отметил: «Это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молодёжи Кёнгидо развиваться через разнообраз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активности. Надеюсь,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молодых людей примет вызов. Мы продолжим прилагать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для создания ещё более справедливых и доступных молодёжных программ».

Климатическая волонтерск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молодёжи Кёнгидо за рубежом

Вы знали, что для молодёжи, проживающей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ткрываются ещё более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объявила набор 200 молодых людей,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волонтерской программе по климатическим действиям за рубежом..<중략, 한글 기사 상단>

#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외국인주민도 함께 만들어요

## Let's create a culture of proper 119 ambulance use, including foreign residents



The National Fire Agency (Commissioner Heo Seok-gon) is promoting the 'Proper 119 Ambulance Use Culture Spreading Campaign' to secure the golden time for emergency patients and reduce unnecessary loss of firefighting power.

Through this campaign, the National Fire Agency wants to inform the public and foreign residents of three things: ▲Refrain from indiscriminate non-emergency reports ▲Eradicate assault on 119 paramedics ▲Respect the hospital selection of paramedics. Let's find out more about what it's about.

### Refrain from indiscriminate non-emergency reporting

When you call 119 because you have a patient, an ambulance comes to your house, so there are cases

where people call even if it is not an emergency.

Some people call 119 and ask for an ambulance even if they have simple symptoms like a toothache or a cold. It is really absurd.

Ambulances should always be ready for serious emergencies such as cardiac arrest, stroke, myocardial infarction, and severe trauma, but if you call an ambulance for something trivial, a critical patient could be put in danger.

### Eradicate assault on 119 rescue workers

119 paramedics work really hard to protect the lives and safety of citizens. However, recently, there have been cases of paramedics being assaulted or their activities being obstructed.

According to the National Fire Agency's statistics, the total number of cases of paramedic assaults over the past five years was 1,185, meaning that an average of 309 paramedics are being assaulted each year. I was shocked by the huge number.

Assaulting paramedics is a serious social crime that can lower the morale of paramedics, discourage their rescue activities, and lower the quality of emergency services.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people

who are drunk usually commit such acts and can be severely punished under the Fire Service Act.

### Respect for the paramedic's choice of hospital

When an ambulance arrives with a critical patient, the paramedics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severity of the patient's symptoms, whether there is a department to treat them, whether procedures are available, and real-time emergency room bed information to select a hospital to transport them to.

However, some patients or guardians are demanding things like, "Please take me to the hospital closest to my house," "I know a doctor at ○○ Hospital," or "Please take me to a large hospital no matter what." This is the same as not trusting the professional judgment of the paramedics and insisting on doing as they wish. In an emergency situation, you should respect the decision of the paramedics, no matter which hospital you go to.

Foreign residents should also participate in this campaign and encourage paramedics who are doing their best to save people's lives in difficult situations.

〈한글 기사 21면〉

파과야스토리

남양주시가족센터 2025년 하반기 **한국어교육맛집**

## 한국어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구분	과정명	운영시간	운영기간	장소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화,목) 10:00-13:00 [총 33회기 / 100시간]	7/29 - 11/27 11/27<평가>	한국어교실 1
> 소시넷 사전 신청자 접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화,목) 10:00-13:00 [총 33회기 / 100시간]	7/30 - 11/28 11/28 <평가>	한국어교실 2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초반	(수,금) 10:00-13:00 [총 33회기 / 100시간]	7/30 - 11/28	한국어교실 1
	발음특강반	(수,금) 13:30-15:30 [총 28회기 / 56시간]	8/6 - 11/19	한국어교실 1
	토픽반	(화,목) 13:30-15:30 [총 28회기 / 56시간]	7/29 - 11/13	한국어교실 1

**프로그램 신청 방법**

과정명	★해당 과정을 모두 신청해야만 접수가 완료됩니다(프로그램 신청)★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01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01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기초반	01 사전교육(하)기초반 02 기초반1 03 기초반2 04 기초반3
발음반	01 사전교육 발음특강반 02 발음반1 03 발음반2 -
토픽반	01 사전교육(하) 토픽반 02 토픽반1 03 토픽반2 -

| 수강 신청 : 패밀리넷(www.familynet.or.kr)회원가입 ★ 교육 받는 수강생 이름 가입 ★  
> 로그인 > 참여마당 > 프로그램 신청 > 경기도/남양주시 검색 > 과정명 찾아 모두 신청

☎ 031) 556-8212 남양주시가족센터 가족돌봄팀

남양주시가족센터 NAMHYANGJU FAMILY CENTER

## 2025년 인구의 날 기념 온(All) 가족 행복 In! 한(One)마음 가족운동회

2025년 7월 19일(토)  
12:00 ~ 16:00

장소 | 남양주체육문화센터(다산지금로 91)  
대상 | 남양주시 거주 가족 400명(선착순 접수마감)  
신청 | 온라인 사전 신청 : 6월 23일 ~ 7월 9일  
※선정발표 : 7월 11일,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

1부 (12:00~14:00)  
축하맨스공연, 가족체력부스, 이벤트존, 포토존  
체험 부스  
만들기 체험 : 원목타일컵받침, 요술팔찌, 마트료시카 명화템블러, 에코파우치 등  
그 외 체험 : 전통의상체험, 스포츠 놀이기구(3종) 인생네컷, 스트레스 지수 측정 등

2부 (14:00~16:00)  
가족 운동회  
가족오락관, 협동지구공 나르기, 터널 통과, 신발양궁 등

| 문의 | 남양주시가족센터 가족문화팀  
031-553-8211

남양주 남양주시가족센터



## '상호존중하는 사람 중심 지역사회 만들어요'

###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 릴레이캠페인 참여

이영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장은 최근 장선영 남양주시다산노인복지관장의 지목을 받아 '상호존중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상호존중 릴레이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며 서로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영 센터장은 "이주민 200만 시대! 상호존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능력"이라며 "상호존중은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존에 반드시 요구

되는 생애 핵심능력이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이주민과 선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중심의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 존중하고 존중받는 친다문화적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영 센터장은 다음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이주연 남양주시가족센터장을 지목했다.

송하성 기자

## 몽골문화촌을 지역문화 중심지로 조성!

### 남양주시, 한국과 몽골 문화의 만남 '글로벌 페스티벌' 개최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수동면 몽골문화촌에서 개최한 '글로벌 페스티벌-한국&몽골 문화 교류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몽골 간 문화 교류를 통해 시민들이 몽골 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400여 명의 시민이 페스티벌에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몽골 문화 체험 △퇴계원 산대놀이 △합합 댄스크루 △퀴즈타임 △몽

골 민요 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과 몽골의 전통 문양을 활용한 종이탈, 부채, 키링, 비누를 만드는 체험과 몽골 전통의상 착용 체험은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주광덕 시장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수동에서의 첫 1박 2일을 보내며 이곳 몽골문화촌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깊이 고민했다"며 "수동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거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동면을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힐링 빌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부터 몽골문화촌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연장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글래핑 카페와 미디어 체험관 등 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2026년 상반기 전면 재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 남양주시, 새롭고 풍성하게 호평 장난감도서관 문 연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화재 피해를 입은 '호평 장난감도서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25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그간 장난감도서관은 실내외 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하고, 실내 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시설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환경을 위해 장난감도서관 회원의 선호도가 높은 장난감 총 716점(장난감 683점, 백일상 22점, 행사용품 11점)을 전면 신규 구입해 대여 준비를 마쳤다.

오는 7월 4일에는 재개소를 기념해 장난감도서관 이용 회원을 위한 '토이 닥터 장난감병원', 영유아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난감도서관의 재정비 기간 대여 서비스 이용이 불편함에도 기다려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난감도서관은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재직 중인 영유아 양육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후 연회비 1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사전 예약을 통해 1회 2종(대형 1종, 소형 1종)의 장난감을 2주간 대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 031-528-446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 "여성 창업의 꿈을 지원한다" '남양주시 꿈마루' 개소식 열려

남양주시는 지난 6월 19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한 여성 창업 플랫폼 '남양주시 꿈마루' 개소식을 개최했다.

지난 4월 30일 공식 개소 이후 약 한 달간의 운영을 거쳐 열리는 이날 개소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경기도 고용평등과장, 남양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관내 창업 관련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시설 소개 영상 시청 △여성 창업 성공사례 발표 △시설 라운딩 등 순으로 진행됐다. 금곡동(흥유로248번길 39, 316호)에 소재한 꿈마루는 총 129.16㎡ 규모로 △교육실 △미팅룸 △공용 사무공간 △상품 촬영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창업 및 세무 교육, AI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 역량을 높이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AI 기반 창업 교육, 성공 사례 공유, 창업경진대회 참여 지원 등 다양한 실전형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주광덕 시장은 "경력보유여성의 창업지원 필요성을 절감해 꿈마루 설치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꿈마루가 여성의 도전과 열정을 실현하는 창업 인큐베이터이자 든든한 출발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 광주시가족센터, 여성단체협의회 함께 문화체험 진행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 한국어교육 수강생과 자녀들은 지난 6월 16일 2025년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모두家 어울림'에 참여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 증진과 한국 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총 40명의 결혼이민자와 자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참여해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가평 잣향기푸른마을에서 고추장 및 인절미 만들기 등 전통음식 체험 후, 아침고요수목원을 방

문해 자연을 감상하며 자연과 한국 문화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수목원 관람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정겨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와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 광주시가족센터, 이주민 대상 '찾아가는 운전면허교실' 진행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6월 11일 도로교통공단 원주운전면허시험장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인과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면허 학과시험 '조수석 탈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다양한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11명이 참여했다.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지만, 언어 장벽과 운전면허시험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학과시험에 합격한 한 참여자는 “한국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걱정이 많았는데, 센터의 도움으로 편하게 시험을 볼 수 있어 큰 힘이 됐다”라며 “실기 시험도 열심히 준비해서 꼭 면허를 취득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들에게 단순히 면허를 따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자신감을 키우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운전면허 취득 지원이 이들의 이동권 보장과 안정적인 정착, 나아가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관내 외국인인과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지원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과 실질적인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연극 관람 및 글쓰기로 국어학습 효과 높여요'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6월 15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지원사업 일환인 국어확장학습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극 '내일은 내일에게' 관람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청소년의 고민과 성장, 가족과 희망을 다룬 이 작품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깊이 공감하며 몰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관람 후에는 극의 전개를 파악하고 주요 장면을 정



리해보는 글쓰기 활동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이야기 구조와 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특히 줄거리 요약은 자신의 언어로 내용을 재구성하고 감상을 담아내는 창의적 글쓰기로 진행되어, 국어 실력과 감정 표현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연극을 관람한 참여 아동들은 진지한 태도로 극에 몰입해 웃고 울었다. 이날 참여자들은 공연 관람 후

“배우가 직접 연기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엄마와 안는 장면에서는 눈물이 났다”며 “연극이 정말 재미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광주시가족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단순한 학습을 넘어서는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공감과 자기표현을 중심으로 한 국어학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지속적인 결혼이민자 유입으로 다문화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녀들의 기초학습은 물론 문화·정서 교육을 함께 아우르는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에 힘을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 기반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지원사업은 연중 상시모집 중이다. 교육 신청 및 문의는 전화(070-4706-3618)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gặp khó khăn do nắng nóng mùa hè năm nay, hãy đăng ký tham gia “Bảo hiểm khí hậu Gyeonggi”! 외국인도 경기기후보험 확인

**\*Có một loại bảo hiểm tuyệt vời ở tỉnh Gyeonggi sao?** : Từ mùa hè năm nay, nếu người nước ngoài sinh sống tại tỉnh Gyeonggi gặp khó khăn do mắc các bệnh liên quan đến nắng nóng như say nắng hay sốt nhiệt, họ sẽ được nhận 100.000 won theo chính sách bảo hiểm khí hậu của tỉnh Gyeonggi. Ngoài ra, nếu thuộc đối tượng của Chương trình quản lý sức khỏe tại nhà do trung tâm y tế địa phương thực hiện, bạn còn có thể được hỗ trợ thêm chi phí nhập viện và chi phí đi lại.

**\*Bảo hiểm khí hậu là gì?** : Bảo hiểm khí hậu là loại bảo hiểm chính sách đầu tiên tại Hàn Quốc nhằm bảo vệ sức khỏe và tính mạng của người dân tỉnh Gyeonggi trước những biến đổi khí hậu khó lường. Tất cả cư dân tỉnh Gyeonggi, bao gồm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đăng ký, đều có thể được hưởng quyền lợi mà không cần thủ tục đăng ký riêng.

**\*Bạn sẽ nhận được bao nhiêu tiền bồi thường?** :

Nội dung bảo hiểm gồm ▲ 100.000 won khi được chẩn đoán các bệnh liên quan đến nhiệt do nắng nóng (như say nắng, sốt nhiệt, v.v.) ▲ 100.000 won khi được chẩn đoán các bệnh truyền nhiễm do muỗi và ve (như sốt rét, sốt phát ban Tsutsugamushi, v.v.) ▲ 300.000 won khi bị thương liên quan đến khí hậu (chẩn đoán trên 4 tuần). Đặc biệt, trong số người dân trong nước, những đối tượng thuộc nhóm dễ tổn thương do khí hậu và tham gia chương trình quản lý sức khỏe tại nhà sẽ được hỗ trợ thêm các khoản sau ngoài các nội dung bảo hiểm trên: ▲ Chi phí nằm viện do bệnh nhiệt (10.000 won mỗi ngày) ▲ Chi phí đi lại đến cơ sở y tế khi có cảnh báo thời tiết ▲ Chi phí vận chuyển khẩn cấp sau đó.

**\*Người thuộc diện quản lý sức khỏe tại nhà là gì?** : Đây là chương trình mà các nhân viên chuyên môn như y tá từ trạm y tế địa phương sẽ trực tiếp đến tận nhà để cung cấp các dịch vụ quản lý sức khỏe cho những nhóm đối tượng dễ bị tổn thương

có yếu tố nguy cơ về sức khỏe như bệnh tật.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thấp, gia đình đa văn hóa, người cao tuổi từ 65 tuổi trở lên có thể đăng ký tham gia. Đặc biệt,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hoặc những người có vấn đề về sức khỏe nên đăng ký chương trình quản lý sức khỏe tại nhà trước tại trạm y tế.

**\*Bạn phải đăng ký nhận tiền bảo hiểm ở đâu?** : Người muốn đăng ký nhận tiền bảo hiểm có thể liên hệ trung tâm tổng đài đại diện của bảo hiểm khí hậu là Hanwha Life Insurance (Số điện thoại: 02-2175-5030). Nếu có thắc mắc liên quan đến bảo hiểm khí hậu, bạn có thể tra cứu trên trang web của tỉnh Gyeonggi ([www.gg.go.kr/gg\\_insure](http://www.gg.go.kr/gg_insure)) hoặc gọi điện thoại hỏi Hanwha Life Insurance. Bảo hiểm khí hậu chỉ có ở tỉnh Gyeonggi, nhưng cư dân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có thể tận hưởng đầy đủ các quyền lợi nhé~ <한글 기사 28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Энэ зун халуунаас болж ихээр зовж буй гадаадын иргэд “Кёнги аймгий цаг уурын даатгал”-д хамрагдаарай! 외국인도 별도 가입절차 없이 ‘경기 기후보험’ 이용

**\*Кёнги аймагт үнэхээр гайхалтай даатгал байна гэж үү?**

Энэ зунаас эхлэн гадаадын иргэд ч халуунаас үүдэлтэй наранд цохиулах, халууны хордлого зэрэг халуунд өртсөн өвчинд нэрвэгдэж зовсон тохиолдолд К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 уурын даатгалаар 100,000 воны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 авах боломжтой.

Хэрэв та орон нутгийн эрүүл мэндийн төвийн “Гэрээр очиж үзлэг хийх эрүүл мэндийн хөтөлбөр”-т хамрагдсан бол эмчилгээний зардал, унааны зардал зэрэгт нэмэлт тусламж авч болно.

**\*Цаг уурын даатгал гэж юу вэ?**

Цаг уурын даатгал гэдэг нь урьдчилан таамаглахын аргагүй цаг уурын өөрчлөлтөөс Кёнги аймгийн иргэдийн эрүүл мэнд, амь насыг хамгаалахад зориулсан, БНСУ-д анх удаа хэрэгжиж буй төрийн бодлогын даатгал юм.

Тусгай бүртгэл, элсэлтийн шаардлагагүй бөгөөд гадаадын бүртгэлтэй иргэдийг ч хамруулан Кёнги аймгийн иргэн бол хэн бүхэн энэ даатгалын үр шимийг хүртэх боломжтой.

**\*Хэчнээн хэмжээний нөхөн төлбөр олгодог вэ?**

Даатгалын хамрах хүрээ нь дараах байдалтай: ▲ Халуунаас шалтгаалсан өвчин (халууны хордлого, наранд цохиулах зэрэг)-ий онош гарвал 100,000 won ▲ Шумуулаар болон хачгаар дамжих халдвар (хумхаа, цэцэгт тахал зэрэг)-ын онош гарвал 100,000 won

▲ Цаг ууртай холбоотой бэртэл гэмтэл (4 долоо хоногос дээш эмчилгээ шаардсан тохиолдолд) – 300,000 won Ялангуяа дотоодын иргэд дундах цаг уурын эрсдэлд өртөмтгий бүлэг буюу “Гэрээр очиж үзлэг хийх эрүүл мэндийн хөтөлбөр”-т хамрагдагсад дээрх нөхөн төлбөрөөс гадна дараах нэмэлт дэмжлэг үзүүлнэ: ▲ Халуунаас үүдэлтэй өвчнөөр эмнэлэгт хэвтсэн тохиолдолд хонгогийн 100,000 воны эмчилгээний зардал ▲ Онцгой цаг уурын үеийн эмнэлэг явах тээврийн зардал ▲ Шуурхай тээвэрлэлт (авралтын) зардал зэрэг болно.

**\*Гэрээр очиж үзлэг хийх эрүүл мэндийн хөтөлбөрийн зорилтот бүлэг гэж хэн бэ?**

Энэ нь өвчин болон эрүүл мэндийн эрсдэлтэй эмзэг бүлгийн иргэдэд зориулсан хөтөлбөр бөгөөд орон нутгийн эрүүл мэндийн төвөөс сувилагч болон мэргэжлийн ажилтнууд тухайн хүний гэрт нь очиж эрүүл мэндийн үйлчилгээ үзүүлдэг хөтөлбөр юм.

Орлого багатай иргэд, олон үндэстний гэр бүл, 65-аас дээш насны ахмадууд зэрэг хамрагдах боломжтой. Эрүүл мэндийн хувьд асуудалтай олон үндэстний гэр бүл зэрэг иргэд урьдчилан эрүүл мэндийн төвд хандан “гэрээр очиж үзлэг хийх хөтөлбөр”-т бүртгүүлж байх нь зүйтэй.

**\*Даатгалын мөнгийг хаана хандаж авах вэ?**

Даатгалын мөнгийг авахыг хүссэн хүн Кёнги аймгийн цаг уурын даатгалын албан ёсны утсаар харилцах төв болох Ханва Даатгал (02-2175-5030) руу холбогдон хүсэлт гаргаж болно. Цаг уурын даатгалтай холбоотой дэлгэрэнгүй мэдээллийг Кёнги аймгийн цахим хуудас ([www.gg.go.kr/gg\\_insure](http://www.gg.go.kr/gg_insure))-аас авч болох бөгөөд мөн Ханва Даатгал-д утсаар холбогдон асуух боломжтой. Зөвхөн Кёнги аймагт хэрэгжиж буй энэхүү цаг уурын даатгалаас гадаадын иргэд ч бүрэн дүүрэн үр шимийг хүртээрэй~ <한글 기사 28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저소득층 신선 농산물 구입 지원

### 광주시, 12월까지 '농식품 바우처' 확대 시행

광주시는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 지원과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 기반 마련을 위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신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광주시는 올해 3월부터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현재까지 총 190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했으며 오는 12월 12일까지 신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대

표 전화(1551-0857)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는 매월 지원금이 충전되는 형태로 지급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온오프라인 사용처에서 이용 가능하다.

구입 가능 품목은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신선 알류, 흰우유, 잡곡, 두부류 등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제한돼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 가구가 기한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기존 이용자들의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파악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이지은 기자

## 취약계층 성인의 평생교육 지원

### 광주시,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광주시는 6월 26일부터 '2025년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교육 취약계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1인당 연간 최대 35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진행된 1차 모집에서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271명이 선정됐으며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총 502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확대된 지원 대상에는 기존 저소득층과 장애인 외에도 ▲청년층(만 19세~39

세) ▲노인층(만 65세 이상) ▲디지털 역량 교육 희망자(만 30세 이상 일반인) 등이 포함된다.

신청은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일반 시민은 경기도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장애인은 정부24 누리집(보조금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NH농협카드(채움) 형태의 평생교육이용권 포인트가 지급되며 이를 통해 자격증, 어학, 창업, 인문학, AI·디지털 역량 교육 등 다양한 평생교육 강좌 수강 및 관련 교재 구매가 가능하다. 단, 이용권은 경기도가 지정한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 목록은 경기도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통해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 경기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

## 감각 특특2 천연제품공예



**참여대상** \*2020년생~2016년생 관내 6세~초등저학년(1~3학년) 자녀를 둔 6가정 (부모-자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우선 순위: 1. 품앗이 회원 가정  
2. 신규 가정

**신청기간** 6/26(목) 10시 ~ 7/3(목) 23시

**일시** 7/8(화), 15(화) 16:00~18:00

**장소** 경기육아나눔터(대면)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경춘대로 923 산이리대주파크빌 108동 101호

**내용** \* 2회기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 활동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정 후 취소시 추후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됩니다.

회기	주제	세부내용	날짜	요일
1	샴푸바 만들기	두피진단하여 도움이 되는 원료와 좋아하는 향 첨가하여 샴푸바 만들기	7/8	화
2	석고방향제 채색하기	다채로운 색깔로 채색 및 좋아하는 향 첨가하여 방향제 만들기	7/15	화

**신청방법** 광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1. 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gggj.familynet.or.kr>)  
2. 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3.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 천연제품공예 프로그램 신청  
\*부모, 자녀 각각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부모, 자녀 모두 신청 필수)  
\*참여 확정 안내문자 발송예정입니다.

**문의전화** 031-762-7142 (점심시간: 12:00~13:00)



광주시가족센터

### 광주시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 꿈지락 공작소2 라탄공예



**참여대상** \*2020년생~2016년생 관내 6세~초등저학년(1~3학년) 자녀를 둔 5가정 (부모1명-자녀1명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우선 순위: 1. 품앗이 회원 가정  
2. 신규 가정

**신청기간** 7/1(화) 10시 ~ 7/7(월) 23시

**일시** 7/10(목) 16:00~18:00 (총 1회기)

**장소** 공동육아나눔터(대면)

주소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로16, 이편한세상 2차 아파트 205동 1층

**내용** 다용도 바구니 만들기

\* 주제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노쇼 또는 확정 후 취소시 추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됩니다.

**신청방법** 광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1. 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gggj.familynet.or.kr>)  
2. 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3.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 '라탄 공예' 신청  
\*부모, 자녀 각각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부모, 자녀 모두 신청 필수)  
\*참여 확정 안내문자 발송예정입니다.

**문의전화** 031-762-7142 (점심시간: 12:00~13:00)



광주시가족센터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5월부터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문화 적응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볼링 동아리와 베이킹 동아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볼링 동아리는 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볼링센터(양평 공사)의 장소 지원 및 협조를 바탕으로 매주 1회 진행되며, 전문 강사의 지도를 통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참여자들은 목표 점수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소속감과 자신감을 키우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높은 만족도와 참여 지속률을 보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베이킹 동아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결

혼이민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내에서는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베이킹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가족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양평군자원봉사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베이킹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나누며 나눔과 사회참여의 가치를 실천했다.

박우영 센터장은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 세미원, '2025 연꽃문화제' '연꽃, 내 마음에 담다' 주제



자연과 정원이 어우러진 휴식 명소 세미원에서 여름 대표 꽃축제인 '2025 연꽃문화제'가 6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열린다.

올해 연꽃문화제는 '연꽃, 내 마음에 담다'를 주제로, 연잎 위 물방울처럼 고요한 정원을 거닐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제안한다. 세미원 야외 정원에는 국내외 다양한 품종의 연꽃이 만개해 여름의 정취와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전시와 공연, 체험 행사가 함께 운영된다. 연꽃박물관 2·3층에서는 연꽃을 주제로 한 유물 및 작품 전시가, 갤러리 세미에서는 기획 전시가 상시 진행된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7월 5일과 12일에 열리는 야외 음악회 '물 맑은 어울림 음악회' ▶7월 26일과 8월 9일 고가다리 아래에서 펼쳐지는 전통·현대 융합 퍼포먼스 '취타대 공연'이 준비돼 있다.

체험 행사도 풍성하다. 메디컬 아로마테라피, 연잎차 만들기, 네일아트 강의 등 일일 강좌가 마련되며, '세미원 체험 패키지'는 축제 기간 내내 고가다리 아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연꽃문화제는 8월 10일까지 운영되며, 이후 8월 31일까지 동일한 관람 시간으로 연장 개장된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은 오후 7시 30분이다. 축제 기간 중에는 휴관일 없이 매일 개방된다.

이지은 기자

## 外国居民也要一起创造正确的119急救车使用文化氛围!... 希望外国居民也给予协助

消防厅(厅长 许锡坤)为了确保急救患者的黄金时间及减少不必要的消防力损失,正在推进“正确的119急救车使用文化扩散活动”。

通过此次活动,消防厅想告知国民和外国居民▲克制盲目的非急救申报▲杜绝对119急救队员暴行▲尊重急救队员选定医院这三点。我们详细了解一下吧?

### 克制盲目的非急救申报

因为拨打119报警的话,救护车就会开到家里,所以即使不是急诊患者也会报警。

有的人即使有单纯的牙痛或感冒等症状,也会拨打119,要求派救护车。这种行为实在让人无法理解。救护车应该为心脏骤停、脑中风、心肌梗塞、重症外伤等重症急救患者时刻处于准备状态,但是因为小事叫救护车的话,危急患者会陷入危险。

### 杜绝对119急救队员暴行

119急救队员为了守护市民的生命和安全,真的很努力工作。但是最近偶尔会发生殴打急救人员或妨碍急救人员工作的事情。

据消防厅统计资料显示,最近5年间,急救人员暴力受害件数共达1185件,平均每年有309名急救人员受害。这一数字令人震惊。

殴打急救人员不仅会打击他们的士气,还会妨碍急救行动,导致急救服务质量下降,属于严重的社会犯罪。大多数袭击行为是酒后发生的,根据《消防基本法》,此类行为将面临严厉惩罚,大家必须牢记这一点。

### 尊重急救人员的医院选定

危急患者乘坐救护车时,急救人员会综合考虑患者

症状的重症度分类、医院是否设有相关科室、是否具备紧急处置能力、是否可以手术和实时急诊室病床信息等,选定移送医院。

但是部分患者或监护人要求“请去我家最近的医院”、“○○医院有认识的医生”、“请无条件去大医院”等。这种行为实际上是不尊重急救人员的专业判断,而是一意孤行的表现。危急情况下,无论去哪家医院,都要尊重急救人员的决定。

希望外国居民朋友们也能理解并支持奋战在第一线、努力守护生命的急救人员,积极参与本次宣传活动,一起营造正确使用119急救车的社会氛围。

〈한글 기사 2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6월 23일 다문화가정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하남시안전체험장(시설장 조재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남시가족센터와 안전체험장은 상호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하남시가족센터는 하남시안전체험장을 방문해 지하철 안전 체험, 지진 체험 등 주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 필요성을 체감했다.

하남시안전체험장 조재영 시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라며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심폐소생술 체험 ▲지하철 안전교육 ▲지진 대응 훈련 ▲화재 대피 및 진압 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예정이다.

문병용 하남시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정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재난 시 정보 접근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하남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정이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에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 하남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따뜻한 돌봄 환경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6월 10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아이돌봄 활동가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돌봄활동가 1차 보수교육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으며, 2차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3차는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뤄졌다. 교육은 아이돌보미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하남시가족센터는 특히 보수교육에 앞서 돌봄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충에 위로를 전하고, 사기를 북돋우는 의미로 아이돌봄활동가들에게 격려의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6월 19일에는 9월 보수교육에 참여 예정인 활동가 120명과 아이돌보미 집담회를 진행했다.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은 기본과정과 특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상호작용 방법을 학습하고, 라임리히법과 영유아기 놀이 등 실제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실습 활동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이번 3차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는 120명을 대상으로 4~6차 보수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 "팝업 카페로 바리스타의 꿈 현실로"...하남시가족센터, 현장실습 카페 운영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1층에서 바리스타자격증반 수강생들의 현장실습 팝업 카페를 운영했다.

이번 실습은 결혼이민자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바리스타자격증반은 하남시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사업 중 하나로, 단순 기술교육을 넘어 사회경

제적 참여 확대를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업 또는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 있다.

바리스타자격증반은 3월 28일 개강해 ▲커피 이론 및 실습 ▲음료 제조 ▲고객 응대 및 위생 교육 등 현장 직무에 필요한 교육 전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팝업 카페는 그동안의 성과를 실전에서 점검하는 심화 실습 과정이다.

이날 팝업 카페에는 종합복지타운 입주기관 종사자 및 하남시가족센터 이용자 100여 명이 방문해 음료를 주문하고 수강생들과 소통했다. 앞서 진행됐던 5월 행사에는 아메리카노만 제공됐으나, 이번에는 카페라떼, 모카라떼, 카라멜 마끼아도, 바닐라라떼를 추가해 총 5종의 메뉴를 선보이며 고객 맞춤형 메뉴 구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오는 7월 2일 바리스타자격증반의

마지막 현장실습을 앞두고 있으며, 참여 교육생들이 바리스타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캠퍼스 심화과정의 기회 또한 제공하고 있다.

문병용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분들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가족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반까지 연결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가 열린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은 가족센터SOC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사회 가족의 소통, 돌봄, 휴식,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이다. 특히 이 공간을 활용한 직업훈련 실습 사례는 지역 기반 인프라가 어떻게 사회적 자립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김영의 기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요”

## 하남시가족센터,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 실시...맞춤형 가족복지서비스 토대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하남 시민의 가족복지 수요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하남시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를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여성가족부, 경기도, 하남시의 지원으로 설치된 하남시가족센터가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 운영 아래 진행됐으며, 한국자원복지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총 500명의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실시됐으며, 향후 가족복지 정책 수립 및 신규 프로그램 기획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항목은 ▲하남시가

족센터에 대한 인지도 ▲가족관계 및 돌봄 환경 ▲혼인 및 가족 형태 ▲공동체 참여 및 사회활동 ▲직업, 학력, 소득, 출생지 등 인구사회학적 정보 등이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하남시민의 다양한 가족 형태 및 복지욕구를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1인 가구,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정, 고령가구 등 변화하는 가족 구성에 대한 정책적 반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수요조사와 근거 기반의 사업 설계가 필수”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하남시 가족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남시가족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방적 개입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모든 가족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하남시’ 실현에 앞장설 예정이다.

문병용 센터장은 “복지 수요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가족의 형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그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족복지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모집해요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36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이용자에게는 1인당 35만원 상당의 NH농협체크카드 포인트가 지급되며, 해당 포인트는 수강료 및 교재비로 사용 가능하다. 단,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2차 모집은 ▲지역특화 ▲디지털 ▲노인 유형으로 구분해 진행되며, 지난 1차 모집 당시 잔여 인원에 대한 추가모집도 함께 이뤄진다. 추가모집은 ▲일반 ▲장애인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유형은 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이번에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김영의 기자

# “소방청,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외국인주민도 함께 만들어요”

소방청(청장 허석근)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방청이 국민과 외국인주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등 3가지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알아보까요?

###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환자가 있어서 119에 신고를 하면 구급차가 우리 집까지 오니까 응급한 환자가 아닌데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단순 치통이나 감기 등의 증상이 있어도 119에 전화를 해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한다고 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구급차는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 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항상 준비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사소한 일로 구급차를 부르면 위급한 환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119구급대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활동을 방해하는 일들이 가끔 벌어지고 있어요.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185건으로 해마다 평균 309명의 구급

대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너무 많은 숫자라 깜짝 놀랐어요.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구급활동을 위축시켜 구급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예요. 주로 술을 마신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소방기본법에 따라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어요

###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위급한 환자가 있어서 구급차에 타면 구급대원이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 시술 가능 여부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선정해요. 그런데 일부 환자나 보호자

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주세요’, ‘OO병원에 아는 의사 있어요’, ‘무조건 큰 병원으로 가주세요’ 등의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는 구급대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믿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과 같아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느 병원으로 가던 구급대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해요. 외국인주민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격려하고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야겠어요. <중국어 19면, 베트남어 11면, 러시아어 23면, 태국어 33면, 영어 14면, 몽골어 1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하남시청 031-790-6114 하남시가족센터 031-793-2993 하남시민생안정후원회 031-8027-2099 하남성폭력상담소 031-796-1213 하남일자리센터 031-790-689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맛있는 화과자 만들며 한국어 배우요**  
평택시가족센터, 이주배경청소년 한국문화체험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6월 14일 이주 배경청소년 10명과 보호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 화과자 만들기’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센터 내 ‘이주배경청소년 한국어교실’ 연계 활동으로 기획됐으며,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한국의 전통문화와 정서적 배경을 몸소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보호자가 함께함으로써 세대 간, 가족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됐으며, 자녀의 학습 과정

에 보호자가 동행하며 격려하는 시간이 됐다.

참가자들은 전문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화과자의 유래와 특징을 이해한 뒤, 앙금과 반죽을 활용해 각자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동물 모양의 화과자를 만들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전통문화를 배우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 앞으로도 이런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일상의 스트레스 요리체험으로 심표 짝어**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6월 16일 평택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운영 중인 가사스트레스 해소지원사업 ‘스트레스 심표’ 4회기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구움과자 원데이 클래스로, 참여자들은 ‘얼그레이 마들렌 만들기’ 체험을 했다.

이날 활동에서는 마들렌 반죽부터 굽기, 데코레이션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협업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요리 경험을 공유하고, 결과물을 비교하며 웃음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평소 접하기 어려운 베이킹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는 여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특히 프로그램 중간에 각자 만든 마들렌을 함께 시식하며 ‘오늘의 나에게 보내는 응원 한마디’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자기 위로와 정서적 교감을 동시에 끌어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오랜만에 무언가에 집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들렌 향기만큼 마음이 따뜻해졌다.”, “서로 도우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렸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김영의 기자

**문화다양성이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 체험 북부Day!**

Next!!  
서부Day! 8월  
남부Day! 9월  
놓치지마세요

**모집대상** 5~13세(13~21년생) 자녀를 둔 40가족(각 회기당 10가족)

**체험일시**

날짜	국가	시간	체험
7. 9(수)	필리핀	15:30~17:30	olumpia
7.16(수)	태국		patay
7.23(수)	우즈베키스탄		plum
7.30(수)	베트남		월남쌈

**체험내용** 각 회기당 1시간 이해교육 & 1시간 요리체험

**체험장소** 센터 본소(북부) (서정로 295, 북부복지타운 1층 다목적실)

**신청기간** 6월 23일(월) ~ 마감 시까지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 신청)

**참여안내** 모든 회기 참여가 가능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 본 프로그램은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입니다.
- 이해교육은 해당 나라의 '문화 및 전통놀이 & 전통의상'을 탐색하고 체험합니다.
- 요리 재료는 가족당 1세트만 제공됩니다. (형제자매가 참여하더라도 가족단위로 1개의 요리를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요리체험 준비와 재료가 사전 준비되므로 신청 후에는 꼭!! 책임감있게 참석해주세요.
- 불참 시 다른 가족의 소중한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니, 성실히 참여해주실 분만 신청부탁드립니다.

☎ 문의 : 가족교육팀 031-615-3965

QR 코드 스캔

평택시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모집기간 단,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2025년 7월 1일(화)~7월 31일(목) / 8월 말 대상자 발표

**신청방법** \*전화로 시간 예약 후 방문, 대기시간 발생  
구비서류 지참 후 평택시가족센터(서부본소) 직접방문

**신청장소**  
평택시 안중을 서동대로 1557, 평택시가족센터 3층 305호

**필수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공통)	추가
부모/본인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촌 이내 혈족	-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 2024년 소득금액증명서(7월발급가능)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자에 따라 서류가 상이하니 전화로 확인 필수

**신청문의**  
담당자 (031.660.7477) \*예약 접수 후 방문/ 12시~1시: 점심시간  
※ 교육활동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가능 ※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 For young people going abroad, a wider range of opportunities has opened up

### Gyeonggi Youth Climate Action Overseas Volunteer Service

Did you know that there are wider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living in Gyeonggi Province?

Gyeonggi Province is recruiting 200 young people to participate in climate action overseas volunteer work until July 8.

The 'Gyeonggi Youth Climate Special Envoy' will mainly carry out climate crisis response volunteer work such as tree planting, forest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education to resolve the climate gap problem emphasized by Gyeonggi Province Governor Kim Dong-yeon.

Gyeonggi Province plans to dispatch 120 people to three countries (Mongolia, Kyrgyzstan, and the Philippines) in August and 80 people to two countries (Cambodia and Laos) in October. Participants will be provided with all volunteer expenses, including airfare and accommodation. Participants must be young people aged 19 to 39 who currently reside in Gyeonggi Province

as of the announcement date, have no problems with visa issuance, and are capable of overseas volunteer activities. Foreigners cannot apply, but it would be great if multicultural families and youth actively applied.

Participants will be supported with all volunteer expenses, including airfare and accommodation. Participants must be young people between the ages of 19 and 39 who currently reside in Gyeonggi Province as of the announcement date, have no problems with visa issuance, and are capable of volunteering overseas. Foreigners cannot apply, but it would be great if multicultural families and youth actively applied.

You can apply online at Jobaba Apply (apply.jobaba.net). Applicants will undergo a document screening and interview, and successful applicants will be announced on July 21. Successful applicants will complete the character education and local activity plan by team before being dispatched, and will be dispatched to the country for approximately 3 weeks in August and

October to do volunteer work.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Kaya International (070-5121-2198).

### Gyeonggi Youth Ladder Program

The 338 participants in the third Gyeonggi Youth Ladder Program, which provides overseas university study experience to young people, helping to bridge social gaps and open up diverse career paths, will depart for 12 universities in 8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S., Canada, and Australia, starting in late June.

On the 21st, Gyeonggi Province held the inauguration ceremony of the '2025 Gyeonggi Youth Ladder Program 3rd Term' at the Dasan Hall of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and cheered on the first steps of 338 young people to advance into the world. The 'Gyeonggi Youth Ladder Program' is the representative youth policy of the 8th local government for 'more equal opportunities', and aims to eliminate the gap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ining experience and expand the

scope of career exploration.

This year, 338 people were selected for the 3rd batch with a competition rate of 16.7 to 1. They are scheduled to begin their training at 12 universities in 8 countries: ▲USA (University of Michigan, University at Buffalo, University of Washington, UC Irvine, etc.), ▲Canada (UBC), ▲Australia (University of Sydney, University of Queensland, etc.), ▲UK (University of Edinburgh), ▲France (University of Grenoble Alpes), ▲Spain (University of Alcalá), ▲Singapore (National University), and ▲China (Peking University) from June 30.

Kim Seong-jung, the First Vice Governor of Administrative Affairs, said,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young people in Gyeonggi Province to grow through various activities overseas, so I hope that many passionate young people in Gyeonggi Province will take on the challenge," and added, "We will continue to do our best to establish better youth policies so that everyone can have equal opportunities."

〈한글 기사 13면〉

파파야스토리

## Создаем культуру правиль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арет скорой помощи 119!

Агентство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чальник Хо Сок Кон) проводит кампанию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культуры правиль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арет скорой помощи 119»,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золотое время спасения для экстренных пациентов и сократить ненужные потери пожарных ресурсов.

Через эту кампанию агентство hopes донести до граждан и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следующие три ключевых момента:

▲ Воздержание от необоснованных вызовов при неэкстр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 Пресечение насилия в отношении спасателей 119

▲ Уважение к решению спасателя по выбору больницы

**Рассмотрим каждый пункт подробнее!**

Воздержание от необоснованных вызовов при неэкстр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Бывают случаи, когда люди выз

ывают скорую 119, даже если состояние пациента не является экстренным, просто потому что скорая придет прямо к дому.

Некоторые звонят в 119 даже при зубной боли или обычной простуде и просят прислать карету скорой помощи. Это вызывает искреннее недоумение.

Скорая должна быть всегда готова для тяжёлых экстренных случаев, таких как остановка сердца, инсульт, инфаркт миокарда, тяжёлые травмы и т.д.

Если вы вызываете скорую по незначительным причинам, это может поставить под угрозу жизн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уждающегося пациента.

**Пресечение насилия в отношении спасателей 119**

Сотрудники скорой помощи 119 усердно работают ради спасения жизни и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граждан.

Однак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участились случаи нападений на спасателей или препятствования их работе.

Согласно статистике агентства, за последние 5 лет было зафиксировано 1,185 случаев насилия над спасателями, и в среднем ежегодно страдают 309 сотрудников. Эти цифры шокируют.

Насилие в отношении спасателей снижает их моральный дух, мешает проведению спасатель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ухудшению качества медицинских услуг.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такие инциденты происходят в состоянии алкогольного опьян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помнить, что по закону об основах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за такие действия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ерьёзное наказание.

**Уважение к решению спасателей по выбору больницы**

Когда пациента с экстренными си

мптомами везут в скорой, спасатели и выбирают больницу, учитывая тяжесть симптомов, наличие необходимых отделений, возможность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или проведения процедур, а также текущую загруженность больниц.

Тем не менее, некоторые пациенты или их сопровождающие требуют: «Отвезите в ближайшую к дому больницу», «В ○○ больнице у нас есть знакомый врач», «Везите только в крупную больницу» и т.д.

Это означает недоверие к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мнению спасателей и настаивание на своём.

В экстренной ситуации важно доверять решению специалистов и следовать их выбору.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также должны поддержать спасателей, которые изо всех сил стараются спасти жизни в трудных ситуациях, и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этой кампании. 〈한글 기사 2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6월 25일 고덕레인보우 로타리클럽과 후원금 전달식 및 ‘글로벌 레인보우 스쿨’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평택시 관내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일상 속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기초반, 기초 스피치반, 토픽반 등 수강자의 언어 수준에 따라 운영된다.

기초반과 기초 스피치반은 특히 한국에 초기 입국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활 밀착형 의사소통 방법 중심의 수업이 진행된다.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인 시장 이용, 병원 방문, 아이 돌봄, 대중교통 이용 등에서 자신 있게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토픽반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6급 수준에 해당하는 심화 교육으로, 고급 의사소통 능력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취업, 사회참여,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 더 폭넓은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은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언어였는데, 이렇게 수준별로 체계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어 정말 기쁘다.”라며 “이번 수업을 통해 가족들과 더 잘 이야기하고 싶고, 장을 보거나 병원에 혼자 가는 일도 더는 두렵지 않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한국사회 정착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결혼이민자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 “풍선아트로 재밌게 문화다양성 배워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6월 10일과 17일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풍선아트 동아리 ‘에어팝(AirPop)’ 3~4회기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지닌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구성원 간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3회기 활동에서는 꼬리풍선과 요술풍선을 활용하여 ‘꿀벌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노란색과 검정색 풍선을 조합해 귀엽고 생동감 넘치는 꿀벌을 완성하며 풍선아트 기법적인 기술을 익혔다.

단순한 형태 속에서도 풍선의 다양한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다문화가족들은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다.

4회기는 요술풍선과 꽃다발 포장지를 활용한 ‘데이지 꽃다발 만들기’ 활동이 이뤄졌다. 참여자들은 하얀 꽃잎에 알록달록한 꽃받침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아기자기한 데이지 풍선꽃을 완성했다. 특히, 실제 꽃다발에 사용하는 포장지를 활용함으로써 입체감과 완성도를 높였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에어팝’은 단순한 공예 활동을 넘어, 가족 간 협업을 통한 성취 경험과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 평택시가족센터, 6월 가족놀이터 '커플 은팔찌 만들기' 체험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6월 21일 2013~21년생 자녀를 둔 20가족(총 40명)을 대상으로 6월 가족놀이터 프로그램 ‘커플 은팔찌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무른 금속인 ‘은’을 활용해 가족이 서로의 이름이나 이니셜을 새기고, 세상에 하나뿐인 커플 팔찌를 제작하는 금속공예 체험으로 이뤄졌다.

금속공예 전문가인 평택문화원 소속 류정화 강사의 지도로 참여 가족들은 은판을 망치로 다듬고 문자를 새기는 등 전 과정을 체험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생각하며 팔찌를 제작하는 과정은 단순한 공예활동을 넘어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체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은팔찌를 만드는 시간이 무척 새롭고 즐거웠다. 서로의 이름을 새기며 정성을 쏟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처음 접해보는 공예 체험이었지만 강사님의 설명이 쉬워서 만족스러웠고,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이라 더욱 뜻깊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작품을 응원했으며, 완성된 팔찌를 함께 감상하며 기쁨과 뿌듯함을 나누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자기돌봄 배워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5월 20일 다문화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 사랑과 회복’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진행되며, 총 7회기 운영된다.

이번 집단상담은 참여자들이 감정을 정화하고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참여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공감함으로써 자기 이해를 높이고, 집단 내 유대감을 형성하여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집단상담 1회기에서는 참여자들이 함께 집단 규칙을 정하고, 별칭 짓기 및 자기 소개 활동지를 작성한 뒤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집단 구성원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약, 위기가족의 복합적인 문제 해결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족 기능 회복과 정서적·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전문상담, 사례관리, 교육, 생활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직업 체험하며 함께 성장해요”**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지원**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6월 14일 진로설계지원사업 두드림(Do Dream) 프로그램 일환으로 초등학교 3~4학년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집단상담과 ‘가족공예가’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집단상담은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하고, 또래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참여 아동들은 활동을 통해 평소 자신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이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친구들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직업체험 활동에서는 ‘가족공예가’라는 직업을 소개하

고, 가족을 다루는 과정과 실제 직업 현장에서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참가자들은 직접 카드지갑을 만들어보며 창의성과 집중력을 발휘했으며, 완성된 작품에 대한 성취감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지난 6월 21일에는 진로설계지원사업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 ‘목공예가’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목공예가’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목공 작업을 체험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고래 모양의 나무 독서대를 직접 조립하고, 다양한 스텐실 도안을 활용해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꾸미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동물, 문구, 자연물 등 여러 형태의 스텐실 중 자신이 좋아하는 도안을 골라 물감을 칠하며 독서대를 완성함으로써 창의력과 표현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아를 탐색하고, 친구들과의 소통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며 “진로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영의 기자

## 평택시가족센터, 현직 교사가 진행하는 중학교 진학설명회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6월 21일 진로설계지원사업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학부모 16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진학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들이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의 진학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직 중학교 교사를 초청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자유학기제, 중학교의 수업 및 평가 방식, 자녀와의 소통 및 학습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학부모들이 평소 궁금해했던 점들을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참여 학부모들은 “학교 진학과정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진학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줄어들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는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진로 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 평택시가족센터, 가족이 행복 해지는 '아빠의 행복한 실험실'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6월 21일 아버지 자조모임 ‘행복한 아빠의 실험실’ 5회기를 진행했다. 이번 자조모임은 영유아기 자녀와 아버지 12명(6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림책을 기반으로 한 놀이와 예술 체험 활동을 통해 친밀감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모임은 자녀와 아버지가 자유롭게 놀이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참여 가족들은 모래놀이, 소꿉놀이 등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또래 자녀를 둔 아버지들 간 육아 공감대도 형성됐다.

또한, 그림책 <날씨 상점>을 함께 읽으며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로 소통한 뒤, 예코백 만들기 체험이 이뤄졌다. 아이들이 아크릴펜이나 아크릴물감으로 가방에 그림을 그리는 동안, 아버지들은 틀을 잡아 주거나 가방을 고정해주는 등 자녀와의 협업을 경험했다. 그림책 속 바람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다양한 색의 물감을 활용해 그림을 꾸미는 미술 활동, 거품을 활용한 촉각 놀이도 진행됐다. 김영의 기자

**온가족 보듬사업**

2025 온가족보듬사업 교육문화프로그램  
**평택고려인협회와 함께 하는 행복나들이**  
**여름아 기다려**

**일시** 2025.07.05.(토) 09:00 ~ 17:00  
**대상** 평택시 거주 고려인가족 35명  
**장소** 소노벨천안 오션어드벤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종합휴양지로 200)  
**모집기간** 2025.06.16.(월)-06.25.(수)  
**신청방법** 온라인 QR 신청(참여자 모두 신청 필요)  
**신청문의** 통합지원팀(031-660-7474)

평택시가족센터

**두드림(Do Dream) 직업체험**

**웹툰 작가**

**직업체험 모집기간**  
 2025.06.23 ~ 2025.07.11

**문의 : 031-615-3901**

- 참여대상** 다문화가족자녀 초등학교 저학년 10명 (1그룹)  
 다문화가족자녀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생 10명 (2그룹)
- 일시** 7월 12일(토)  
 1그룹 : 10:00~11:30(10명)  
 2그룹 : 12:00~13:30(10명)
-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접수
- 비용** 무료
- 장소** 평택시가족센터 1층 (사정로295)

**신청 QR**

1그룹

2그룹

**\*두드림(Do Dream) 참여자 우선선발**

평택시가족센터

## 다양한 활동, 부부소통 키워요

###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부부 교육.체험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6월 14일 다문화부부 8쌍 총 16명을 대상으로 부부교육 프로그램 ‘행복한 팀플레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부들이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 회기에서는 ‘문화 이해’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자신과 모국을 소개하는 사진을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아이스크림 레이킹 시간을 가졌고, 감정카드를 활용해 최근의 감정 상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각국의 가족관과 문화적 특징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부부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

기를 마련했다. 또한, 그림을 그리고 ‘우리 부부만의 행동 사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을 강화했다.

두 번째 회기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라탄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가 진행됐다. 참여 부부들은 사전에 준비된 도안을 참고하여 라탄 조명과 원형 바구니를 함께 만들며 서로의 취향과 감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라탄 환심을 직접 꼬아 완성하는 과정은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오롯이 몰입할 수 있는 힐링 시간이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협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완성된 작품은 부부의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꾸며줄 의미 있는 결과물로 남았다.

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 및 소감 나눔 시간에서 대부분 참가자는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참가자들은 “부부간의 언어와 신화에 관해 이야기 나누며 우리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 ‘아빠랑 감자랑’ 작물 수확해요

### 평택시가족센터, 군인가족지원사업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6월 21일 해군 제2함대 소속 군인가족 13가정을 대상으로 계절작물 수확체험 프로그램 ‘아빠랑 감자랑’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군제2함대 군인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참여 가족들은 오전.오후로 나뉘어 감자 수확체험, 숲 탐방, 밭줄 놀이, 바나나보트 타기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자연을 오감으로 느끼고 도심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여가를 즐

겼다. 이를 통해 가족 간 소통을 촉진하고, 군 복무로 인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군인가족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군인 가족들이 재충전의 기회를 얻고, 가족 간 유대감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의 행복을 위해 가족센터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육.해.공군이 모두 주둔해 있는 군사도시 평택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2013년부터 관내 3개 부대 소속 군인 가족을 대상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오고 있다. 031-660-7472 김영의 기자

## 블루베리 수확하며 소중한 하루

### 평택시가족센터, 아버지 역할지원사업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6월 21일 아버지역할지원사업 일환으로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자녀 20가족 40명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전 가족이 빠짐없이 참여하며 가족 간의 애정과 유대감을 다시금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참여 가족들은 블루베리 농장에서 자연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가졌다.

아이들은 익은 열매를 골라 담으며 수확의 즐거움을 느꼈다.

특히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가지의 블

루베리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수확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협력하고 교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농장에서 제공된 전용 용기에 수확한 블루베리를 담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기회를 제공했다.

체험 후에는 자유놀이 활동이 이어졌다. 모래놀이, 해먹, 블럭 놀이 등 다양한 활동 속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들은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가족들은 “아빠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참 귀하고 감사했다.”라며 “자녀와 이런 체험 활동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앞으로 더 자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김영의 기자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 편

평택시가족센터  
PYONGTAEK CITY FAMILY CENTER

## · 행복한 팀플레이 ·

**대상**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중인 부부 20명(10가족)  
\* 남편과 아내 모두 신청해주세요!

**일시** 2025.07.12.(토) 10:00~15:00

**장소** 평택시가족센터 107오 강의실  
(경기 평택시 서정로295, 북부복지타운 1층)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연간운영계획

신청 바로가기

♥ 1회기 ♥

**[부부 교육] 10:00~12:00**  
애니그램을 활용한 감정코칭 & 배우자와 협력하는 양육법  
With. 최주희강사(문학치료사)

♥ 2회기 ♥

**[부부 체험활동] 13:00~15:00**  
우리 집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제로모나이트공예체험 : 화병 & 트레이)  
With. 김해연강사(요양아카데미)

문의) 가족지원팀 031-615-3906

★ 안내사항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 ♥ 여러 가족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애주기별·가족유형별 프로그램 **중복 신청이 어렵습니다.** 연간 운영 계획을 미리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녀동반이 어렵으며**, 당일 자녀를 동반하실 경우 프로그램실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울 수 있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 ♥ 프로그램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지만, 자녀 연령이 대상과 맞지 않거나 생애주기별·가족유형별 프로그램을 **중복 신청할 경우 대기진행** 될 수 있습니다.
- ♥ 본 프로그램은 교육과 체험이 연속으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2회기 모두 참석 가능한 분**들만 신청바랍니다.
- ♥ 확정 및 대기 안내는 웹방문 문자로 안내되며, **웹방문 메세지 차단** 또는 **본 센터 전화번호 스팀등록** 시 안내 메세지 수신에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시 해당 설정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로의 감정 연기하며 관계 회복해요!

### 용인시가족센터, 부부관계 회복 프로그램 ‘사랑한DAY’ 운영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가 운영 중인 부부관계 회복 프로그램 ‘사랑한DAY’가 이혼위기 또는 관계위기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6월부터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은 4회기 일정 중 2회차까지 진행된 상태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체중 중심 심리활동을 통해 관계 회복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고 있다. 특히 회기마다 진행되는 톨플레이잉(Role Playing) 활동은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부부가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감정 교류와 상호작용을 직접 체험해보며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프로

그램에 참여한 한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연기해보는 시간이 어색했지만 큰 도움이 됐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결혼 10년 미만 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랑한DAY’ 1기는 7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며, 마지막 회기에는 수료 상장패 전달과 함께 부부가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용인시가족센터는 오는 9월, 결혼 10년 이상 부부들을 위한 사랑한DAY 2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의 건강한 관계 회복을 위한 맞춤형 심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 용인특례시, 수시대비 대학 입시박람회 7월 19일 죽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월 19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수시대비 대학입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수시전형 비율이 79.9%에 달하는 2026학년도 입시 환경에 맞춰 지역 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 최신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진학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프로그램인 ‘1:1 맞춤형 진학컨설팅’에는 경기진학정보센터 소속 현직 교사들이 참여해 총 312명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수험생은 모의고사 성적표와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일반·체육·미술·농어촌 전형 등을 아우르는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행사 당일 박람회장에서 진행되는 컨설팅을 받고 싶은 학생은 용인특례시 입시박람회 홈페이지(<http://edyongin.joongboo.com>)를 통해 선착순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박람회장에는 서울·수도권 주요 40개 대학의 ‘대학별 상담 부스’가 마련돼 수시와 정시 관련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이지은 기자

# 우리가족 소통 프로그램

모든 가족의 행복 울타리, We are Family

## ZUMBA DANCE

우리 가족만의 즐거운 여가를 만들자!

**일시** 2025. 08/23(토), 08/30(토), 09/05(금), 09/19(금), 09/27(토), 10/11(토)

**장소** 용인시가족센터 4층 강당 또는 가정 내

**대상**

1. 용인시 거주 가족 포함 준비생 (가족 중 한 명 이상 거주 가능)
2. 가족 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용인시민(가족) 누구나

구분	일시	장소	내용
1	08/23(토)	센터 내 4층 강당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줌바댄스
2	08/30(토)		
3	09/05(금)	가정 내	원하는 시간대에 활동 키트 수령 (인절미쌀강정, 송편)
4	09/19(금)		
5	09/27(토)	센터 내 4층 강당	가족 구성원이 함께하는 줌바댄스
6	10/11(토)		

\*신청은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온라인폼(구글폼) 모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대면 활동일 경우, 1부 또는 2부 중 택 1회 참여 \*비대면 활동 진행 후 활동 증빙 자료 제출

— 신청은 여기서!!! 문의 가족소통교육 담당자 070-7477-8545

# 송실

## 력자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

협약기관 외국인 회원 1학기 등록금 72만원 (50% 장학 적용 시)

TOPIK 4급, 학사학위 취득 시 → K-POINT E74 140점 취득 가능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실전형 커리큘럼 송실사이버대학교

##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

25년 7월 19일(토)~25년 8월 14일(목)

입학지원 [go.kcu.ac](http://go.kcu.ac)

# 올 여름 폭염에 고생하는 외국인주민은 '경기 기후보험' 신청해요!

## 외국인주민도 별도 가입절차 없이 '경기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 시 10만원 지급

**\*경기도에 놀라운 보험이 있다고?** : 이번 여름부터 외국인주민도 폭염으로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려 고생하게 되면 경기도의 기후보험에 따라 1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라면 입원비와 교통비 등도 추가로 지원받아요.

**\*기후보험이 뭐야?** : 기후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부터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 최초의 정책보험이에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얼마나 보상 받아?** : 보장 내용은 ▲폭염으로 인

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등) 진단 시 10만 원 ▲모기와 진드기매개 감염병(말라리아, 쯤쯤가무시 등) 진단 시 10만 원 ▲기후 관련 상해 시(4주 이상 진단) 30만 원이에요. 특히 내국인 중 기후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 입원비(일당 10만 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긴급 이송비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방문건강관리대상자는 뭐야?** : 질병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지역 보건소에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다문화가족 등은 미리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아요.

**\*보험금은 어디에 신청하면 돼?** :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후보험 대표 콜센터 한화손해보험(02-2175-5030)에 신청하면 돼요. 기후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insure)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화손해보험에 전화로 문의해도 돼요. 경기도에만 있는 기후보험, 외국인주민들도 마음껏 혜택을 누리요~ (중국어 28면, 베트남어 17면, 러시아어 31면, 태국어 28면, 몽골어 17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今年夏天饱受酷暑之苦的外国居民请申请“京畿气候保险”! ... 温热病诊断时支付10万韩元

**\*京畿道竟然有这种保险?** : 从今年夏天开始,如果外国居民也因酷暑患上中暑或热射病等温热病时,根据京畿道的气候保险,可以得到10万韩元的保险金.如果是地区保健所的访问健康管理项目服务对象的话,住院费和交通费等也将得到追加支援.

**\*气候保险是什么?** : 气候保险是为了保护京畿道居民的健康和生命免受不可预测的气候变化影响的韩国首个政策保险.无需另外的加入程序,包括登记的外国人在内,只要是京畿道居民都可以享受优惠.

**\*可以得到多少补偿?** : 保障内容是▲诊断为酷暑引起的温热疾病(中暑、热射病等)时10万韩元▲诊断为蚊子和昆虫媒介传染病(疟疾、恙虫病等)时10万韩元▲与气候相关的伤害时(4周以上诊断)30万韩元.

特别是韩国人中属于气候弱势群体的访问健康管理项目服务对象的话,除了上述保障项目外,还可以得到▲温热疾病住院费(日薪10万韩元)▲气象特报时医疗机构交通费▲紧急护送费等追加支援.

**\*访问健康管理服务对象是什么?** : 这是针对有疾病等健康危险因素弱势群体,由地区保健所护士等专业人士

直接到家庭提供健康管理服务的项目.低收入阶层、多文化家庭、65岁以上的老人等可以申请.健康有问题的多文化家庭等最好提前向保健所申请访问健康管理项目.

**\*在哪里申请保险金?** : 想要申请保险金的人可以向气候保险代表专属客服中心韩华损害保险公司(02-2175-5030)申请.有关气候保险的咨询可以通过京畿道网站(www.gg.go.kr/gg\_insure)进行确认,也可以打电话咨询韩华损害保险.京畿道独有的气候保险,外国居民也尽情享受优惠吧~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ที่ได้รับผลกระทบจาก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ในฤดูร้อนนี้ ขอให้สมัคร "ประกันภูมิอากาศของก๊ก"! (English)

**\*มีประกันภัยพิเศษในจังหวัดของก๊ก?** : ตั้งแต่ฤดูร้อนนี้เป็นต้นไป 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ป่วยด้วยโรค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ความร้อน เช่น โรคลมแดดหรือโรคลมแดดอันเนื่องมาจาก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จะได้รับเงินประกันจำนวน 100,000 วอน ตามประกันภูมิอากาศของจังหวัดของก๊ก

สำหรับผู้ที่ได้รับบริการโครงการดูแลสุขภาพไปเยี่ยมที่บ้านของศูนย์สาธารณสุขในพื้นที่ ยังจะ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พิ่มเติม เช่น ค่าใช้จ่ายในการรักษา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และค่าเดินทางอีกด้วย

**\*ประกันภูมิอากาศคืออะไร?** : ประกันภูมิอากาศเป็นประกันนโยบายฉบับแรกของเกาหลีที่จัดทำขึ้นเพื่อปกป้องสุขภาพและชีวิตของ ประชาชนในจังหวัดของก๊กจากความเปลี่ยนแปลงของสภาพอากาศที่ไม่สามารถคาดเดาได้ ประชาชนในจังหวัดของก๊กทุกคนรวมถึง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ทะเบียนพักอาศัย สามารถรับ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นี้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สมัครแยกต่างหาก

**\*จะได้รับ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เท่าไร?** : รายละเอียดความคุ้มครองมีดังนี้▲หากได้รับการวินิจฉัยว่าเป็นโรคจากความร้อน (เช่น โรคลมแดด หรือโรคลมแดด อันเนื่องมาจาก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ฯลฯ) จะได้รับเงิน 100,000 วอน▲หากได้รับการวินิจฉัยว่าเป็นโรคติดเชื้อจากยุง หรือตัวไร (เช่น มาลาเรีย, ซีซิกามูชิ ฯลฯ) จะได้รับเงิน 100,000 วอน▲หากได้รับบาดเจ็บ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สภาพอากาศ (ที่ต้องรักษานานกว่า 4 สัปดาห์) จะได้รับเงิน 300,000 วอน โดยเฉพาะสำหรับชาวเกาหลีที่เป็นกลุ่มเปราะบางด้านสภาพอากาศซึ่งอยู่ในโครงการดูแลสุขภาพไปเยี่ยมที่บ้าน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พิ่มเติม ได้แก่ ▲ค่ารักษาพยาบาลกรณีเข้าพักรักษาตัวในโรงพยาบาลจากโรคความร้อน (วันละ 100,000 วอน)

▲ค่าเดินทางไป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เมื่อมีประกาศเตือนภัยสภาพอากาศ ▲ค่าขนส่งกรณีส่งต่อฉุกเฉิน เป็นต้น

**\*ใครมีสิทธิ์รับการดูแลสุขภาพไปเยี่ยมที่บ้าน?** : นี้คือโครงการที่พบบนและผู้เชี่ยวชาญอื่นๆ จากศูนย์สุขภาพ

สาธารณะในท้องถิ่นจะไป เยี่ยมที่บ้านเพื่อให้บริการจัดการด้านสุขภาพแก่กลุ่มเปราะบางที่มีปัจจัยเสี่ยงด้านสุขภาพ เช่น โรคต่างๆ เป็นต้น ครอบครัวที่มีรายได้น้อย, ครอบครัว พหุวัฒนธรรม, และผู้สูงอายุที่มีอายุมากกว่า 65 ปี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 ครอบครัวพหุวัฒนธรรมที่มีปัญหาสุขภาพควรสมัครใช้โครงการดูแลสุขภาพไปเยี่ยมที่บ้านที่ศูนย์สุขภาพสาธารณะล่วงหน้า

**\*จะขอรับเงินประกันได้ที่ไหน?** : ผู้ที่ต้องการขอรับเงินประกันสามารถยื่นเรื่องได้ที่ศูนย์บริการประกันภูมิอากาศ บริษัทฮันฮวาประกันภัย วินาศภัย (โทร. 02-2175-5030) หากมีข้อสงสัยเกี่ยวกับประกันภูมิอากาศ 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ข้อมูลได้ที่เว็บไซต์ของจังหวัดของก๊ก (www.gg.go.kr/gg\_insure) หรือสอบถามทางโทรศัพท์ไปที่บริษัทฮันฮวาประกันภัยวินาศภัยได้เช่นกัน ประกันภูมิอากาศที่มีเฉพาะในจังหวัด ของก๊ก 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สามารถใช้สิทธิประโยชน์นี้ได้เต็มที่เช่นกัน~ (한글 기사 상단)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외국인주민, 이웃과 마음 나눈 하루

###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이주민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는 지난 6월 14일, 지역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주민과 올해 첫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외국인주민들이 쉬는 날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묵묵히 땀을 흘리며 지역 농가를 돕는 모습은 현장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봉사자들은 지역 화훼 농장에서 순 자르기, 작업 보조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했다.

부족한 일손을 보태며 농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서로 다른 문화가 어우러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농장주는 “쉬는 날임에도 외국인주민들이 나와서 기

꺼이 도와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그들의 정성과 손길 덕분에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 참여자는 “이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용국 센터장은 “이번 농촌 봉사활동은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지역과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외국인주민과 지역사회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다문화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 기흥평생학습관 정기교육 및 제4차 장기교육 수강생 모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평생학습관에서 ‘제4차 장기교육’과 ‘제14기 정기교육’ 수강생을 각각 오는 7월 1일부터 3일간, 8월 19일부터 3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7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주간 운영되는 ‘장기교육’은 ▲‘전통 한복 메이킹 클래스’ 등 기술실용 분야(4개) ▲‘기초부터 시작하는 초보자를 위한 영어 입문’ 등 인문교양(3개) ▲‘데생으로 그린 감성 수채화’ 등 문화예술 분야(5개) 등 총 12개 강좌로 구성되며, 14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12주간 운영되는 ‘정기교육’은 ▲‘가정에서 즐기는 홈베이킹’ 등 조리 분야(5개) ▲‘의류 재활용 리폼과 수선’ 등 기술 실용 분야(2개) ▲‘스마트폰으로 나만의 영상 만들기’ 등 정보화 분야(5개) ▲‘공경매 절차 및 권리분석’ 등 인문 교양 분야(2개) ▲‘손글씨 디자인 캘리그래피’ 등 문화예술 분야(6개) ▲‘제과기능사’ 등 자격취득 분야(6개) 등 총 26개 강좌, 359명을 모집한다.

강좌 수강료는 수강료는 강좌 기간과 시간에 따라 3만원부터 15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재료비는 별도 부담이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의 용인특례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에 주소를 둔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재외국민, 결혼 이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기흥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모바일 가능) 접수하면 된다. 교육생은 추천으로 선발하고, 정원이 미달된 강좌는 추가 모집 기간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이지은 기자

## Càng thường xuyên gặp gỡ và giao lưu với cư dân nước ngoài, khả năng chấp nhận đa văn hóa càng cao." 이주민과 자주 어울릴수록 다문화 수용성 높아져

Càng trẻ tuổi và càng có nhiều sự tương tác với người di cư thì mức độ chấp nhận đa văn hóa của người bản xứ càng cao. Chấp nhận đa văn hóa có nghĩa là thái độ hiểu biết và bao dung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có nền tảng văn hóa khác nhau.

Theo kết quả khảo sát “Chấp nhận đa văn hóa quốc gia năm 2024” do Bộ Bình đẳng giới và Gia đình Hàn Quốc công bố gần đây, mức độ chấp nhận đa văn hóa của người trưởng thành đạt 53,38 điểm, tăng 1,11 điểm so với mức 52,27 điểm vào năm 2021. Ngược lại, mức độ chấp nhận đa văn hóa của thanh thiếu niên là 69,77 điểm, giảm 1,62 điểm so với cuộc khảo sát trước đó vào năm 2021 (71,39 điểm).

Cả người lớn và thanh thiếu niên đều cho thấy rằng độ chấp nhận đa văn hóa cao hơn ở độ tuổi trẻ. Ở người lớn, nhóm ở độ tuổi 20 có điểm cao nhất với 55.44 điểm, tiếp theo là độ tuổi 30 với 54.75 điểm, độ tuổi 40 với 53.54 điểm, độ tuổi 50 với 53.11 điểm và từ 60 tuổi trở lên là 51.14 điểm. Ở thanh thiếu niên, học sinh trung học cơ sở đạt 71.00 điểm, cao hơn so với

học sinh trung học phổ thông với 68.52 điểm.

Ngoài ra, mức độ chấp nhận đa văn hóa cao hơn khi có sự tương tác thường xuyên với người nhập cư, người nước ngoài hoặc bạn bè từ gia đình đa văn hóa. Đối với người trưởng thành, mức độ chấp nhận đa văn hóa theo tần suất tương tác với người nhập cư như sau: “ít nhất một lần một tuần” đạt 56,38 điểm; “một lần một tháng” là 54,52 điểm; “một lần một năm” là 53,79 điểm; và “hầu như không có” là 52,35 điểm – cho thấy mức độ chấp nhận giảm dần theo tần suất tương tác.

Tác động tích cực của việc gia tăng người di cư được người lớn và thanh thiếu niên đánh giá cao nhất là “giúp giải quyết tình trạng thiếu hụt lao động”, với tỷ lệ lần lượt là 78,3% và 83,5%.

Đối với người lớn, các lý do cho rằng việc gia tăng người di cư là tích cực bao gồm: “giúp làm giảm tình trạng suy giảm dân số” (67,3%), “tác động tích cực đến nền kinh tế nói chung” (65,6%), “đa dạng hóa đời sống văn hóa” (55,3%), và “góp phần đưa ra ý tưởng

và đổi mới” (45,9%). Ảnh hưởng tiêu cực của việc gia tăng người di cư được cho là “gánh nặng lên hệ thống phúc lợi”, với tỷ lệ lần lượt là 73,1% và 52,2%, là cao nhất. Tiếp theo là “phát sinh xung đột xã hội” (58,0% và 49,7%) và “tình hình tội phạm xấu đi” (51,4% và 35,5%).

Một quan chức Bộ Bình đẳng giới và Gia đình cho biết: “Tỷ lệ hộ gia đình đa văn hóa tại Hàn Quốc đang không ngừng gia tăng. Gần đây, số lượng người di cư kết hôn định cư lâu dài và trẻ em, thanh thiếu niên đa văn hóa trong độ tuổi đi học cũng đang tăng nhanh, vì vậy đây là thời điểm quan trọng hơn bao giờ hết để mở rộng sự đa dạng và tính bao dung”. Quan chức này cũng cho biết thêm: “Chúng tôi sẽ nỗ lực hết mình để xây dựng một xã hội thừa nhận và tôn trọng sự đa dạng bằng cách tăng cường giáo dục nâng cao hiểu biết về đa văn hóa theo từng đối tượng và mở rộng cơ hội giao lưu, trao đổi.”...

〈중략,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음악 재능 있는 청소년 모여라!

#### ‘DMZ국제음악제 뮤직아카데미 특기생’ 모집



연천군은 오는 7월 4일까지 제12회 연천DMZ국제음악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뮤직아카데미 특기생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음악에 재능이 있지만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전공 기회가 부족한 연천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추진됐다. 모집대상은 연천군에서 출생했거나, 본인 혹은 부모가 연천군

에 거주 중인 음악 전공자 또는 전공을 희망하는 초등학교생부터 일반부까지다. 선발 분야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3개 부문이다.

지원 방법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1부와 연주 및 수상경력을 포함한 자유양식의 자기소개서(A4 1매 이내), 그리고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관내 음악 꿈나무들이 DMZ국제음악제를 통해 국내외 저명 연주자들과 호흡하며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DMZ국제음악제 사무국로 문의하면 된다. 031-955-5985 이지는 기자

### 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완료해

#### 연천군, 4~6월 3회에 걸쳐 행정지원 실시



연천군은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의 외국인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 10일에 진행된 외국인등록을 포함해 4월, 5월 포함 총 세 번에 걸쳐 고령 농가주의 인터넷 사용의 불편함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예약과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은 의무대상이며,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지

문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경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된다. 체류자격 및 기간, 외국인등록 번호 등이 기재되어 한국 내 합법 체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다.

부서에서는 절차 안내 및 통역 지원을 위해 직원 3명을 파견하여 농가주와 근로자의 원활한 외국인등록을 지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사업은 농가별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인력을 합법적으로 단기 고용할 수 있으며, 성실근로자 재입국 추천제도가 있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하반기에는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약 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추후 입국할 예정이다. 이지는 기자

### 2025년 연천군가족센터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자 입국초기 정착단계 및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2025. 1. 31.~2025. 12. 31.
- 지원 언어**  
베트남어 지원  
(기타 언어는 인근센터와 연계제공)
- 이용방법**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외)등
- 문의처**  
Tel 031-835-0093  
Mobile 010-3210-5432(센터폰)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 외국인-난민가족 또는 다문화가족
  - 외국인-난민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지원내용**
  - 입국초기 상담, 정보제공, 교육과정 등 통번역
  - 인신·출신·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내용 통역
  - 위기상황 시 긴급지원 등 통번역
  -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이용 시 통번역(공중 제외)
  - 보육기관, 교육기관의 가정통신문 및 상담 등 통번역

- 참고사항**
  - 모든 서비스는 무료 지원
  - 이용자가 내방하는 경우 즉시 서비스를 제공
  - 출장통장의 경우 사전예약 필수
  - 공중·법적책임을 요하는 확인서 발급 제한



Người dân Yeoncheon cần được chăm sóc trong tình huống khẩn cấp

다함께 미래로  
Yes, 연천!

위기상황에 돌봄이 필요한  
연천군민

누구나  
돌봄

360  
돌봄

- 1. 대상** **Đối tượng** Bất kỳ ai ở Quận Yeoncheon cần được chăm sóc
  - Tiêu chí đủ điều kiện
    - ① Gặp khó khăn khi tự đi chuyển hoặc thực hiện cuộc sống hàng ngày độc lập
    - ② Không có người thân hỗ trợ, hoặc có nhưng không thể chăm sóc được.
    - ③ Không sử dụng được dịch vụ chăm sóc công hoặc đang tạm ngưng do lý do bất khả kháng.
- 2. Nội dung hỗ trợ** **Chọn trong 5 loại hình dịch vụ dưới đây, mỗi người được hỗ trợ tối đa 1.500.000 KRW/năm**
  - Chăm sóc tại nhà, đi cùng khi ra , an toàn nơi ở, hỗ trợ bữa ăn, bảo vệ tạm thời
    - Hỗ trợ 100% : Thu nhập ≤ 120% mức trung bình
    - Hỗ trợ 50%: 120% < Thu nhập ≤ 150%
    - Tự chi trả: Thu nhập > 150%
- 3. Đăng ký**
  -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tại xã/phường theo địa chỉ cư trú
  - Tổng đài tư vấn khẩn cấp: ☎ 031-120
  - Hotline phúc lợi khẩn cấp: ☎ 010-4419-7722

변함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 연천군



## 다문화가정 의사소통, 이렇게!

### 과천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컬러풀 커뮤니케이션



과천시가족센터는 지난 5월 27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및 학교 상담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가 알려주는 컬러풀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이자 학부모인 과천시가족센터의 다문화 강사가 직접 다문화가족 내에서 엄마나라말과 아빠나라말이 사용되는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족의 생소한 언

어적·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론 중심의 강의가 아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이 많았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다.

과천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환경에서의 다문화감수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위해 이와 같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교육이 필요한 기관은 과천시가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과천시가족센터는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자료 과천시가족센터

##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тож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Климатическую страховку Кёнгидо» без отдельной процедуры оформления

\* Что за удивительная страховка в Кёнгидо?

Начиная с этого лета, если и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страдают от тепловых заболеваний, таких как солнечный или тепловой удар из-за жары, они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страховую выплату в размере 100,000 вон по климатической страховке Кёнгидо.

Если вы участник программы по управлению здоровьем на дому от местного цен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ы также можете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омощь с расходами на госпитализацию и транспорт.

<На фото: иностранный сезонный рабочий, работающий на поле с бататом. Папайя Стори>

\* Что такое климатическая страховка?

Климатическая страховка — это первая в Коре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страховка, созданная для защиты здоровья и жизни жителей Кёнгидо от непредсказуемы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Без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 отдельном оформлени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ею могут все жители Кёнгидо, включа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 Сколько можно получить?

Сумма выплат:

▲ При диагностике теплов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солнечный удар, тепловой удар и др.) — 100,000 вон

▲ При диагностике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передающихся через комаров и клещей (малярия, цуцугамуши и др.) — 100,000 вон

▲ При травмах, связанных с климатом (при диагнозе более 4 недель) — 300,000 вон

Особенно для уязвимых слоёв населения среди корейцев, уча

ствующих в программе по управлению здоровьем на дому,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 Госпитализация по причине теплового заболевания (100,000 вон в день)

▲ Расходы на транспорт в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при кли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упреждениях

▲ Экстренные расходы на транспортировку и т.д.

\* Кто такие участники программы по управлению здоровьем на дому?

Это программа,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специалисты (например, медсёстры) из местного цен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лично посещают дома уязвимы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с рисками для здоровья (из-за болезней и пр.) 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услуги по уходу за здоровьем.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гут малоимущие, много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пожилые люди от 65 лет и др.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проблемы со здоровьем и вы из многокультурной семьи, рекомендуется заранее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участие в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в вашем цент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 Куда подавать заявку на страховую выплату?

Чтобы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страховой выплаты, обратитесь в главный колл-центр климатической страховки — Hanwha Insurance (02-2175-5030).

Узнать подробности о климатической страховке можно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Кёнгидо (www.gg.go.kr/gg\_insure), а также по телефону Hanwha Insurance.

Климатическая страховка, доступная только в Кёнгидо —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тоже могут свободно получать эти льготы!

<한글 기사 28면>

2025년 이중언어 교육지원

# 언어로 뿌리를, 문화로 날개를

## 두 언어로 행복한 우리집

참여자 모집

오늘은  
엄마나라말, 아빠나라말로 놀이하며  
과녀와 눈맞춤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문화가족 부모 자녀교육 가이드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토들러반)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키즈반)
<p><b>일시</b> 7월 5일 토요일 15:00~17:00</p> <p><b>대상</b> 0-13세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 및 다문화가족 예비부모 10가족</p> <p><b>내용</b> 이중언어는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자녀와 함께하는 이중언어 놀이법은 무엇이 있을까?</p> <p><b>장소</b> 참여자 가정 (ZOOM)</p> <p><b>모집</b> 6월 4일(수) ~ 모집완료시까지</p> <p><b>신청</b> 홈페이지 접수 (부모 모두 참여서, 홈페이지 모두 신청)</p>	<p><b>일시</b> 7/12(토), 7/19(토) 14:00~15:00</p> <p><b>대상</b> 18개월 이상 만3세 미만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7가족</p> <p><b>내용</b> 특목! 미술교실 (7/12) 특목! 운동교실 (7/19)</p> <p><b>장소</b> 센터 2층 누리마루</p> <p><b>모집</b> 6월 4일(수) ~ 모집완료시까지</p> <p><b>신청</b> 홈페이지 접수 (가족구성원 묶어서 접수한 가정 우선)</p>	<p><b>일시</b> 7/12(토), 7/19(토) 15:30~17:00</p> <p><b>대상</b> 만3세 이상 만5세 미만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7가족</p> <p><b>내용</b> 특목! 미술교실 (7/12) 특목! 운동교실 (7/19)</p> <p><b>장소</b> 센터 2층 누리마루</p> <p><b>모집</b> 6월 4일(수) ~ 모집완료시까지</p> <p><b>신청</b> 홈페이지 접수 (가족구성원 묶어서 접수한 가정 우선)</p>

문의: 02.503.0070 (이중언어 교육지원 담당자)



### 가족센터 개관 노래로 축하해

화성시가족센터가 지난 6월 23일 성황리에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내빈과 화성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미 있게 진행됐다.

이날 식전 행사에는 화성시다(多) 문화어린이합창단이 축하공연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합창단은 맑고 청량한 목소리로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개관식의 시작을 알렸고, 큰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화성시다(多)문화어린이합창단은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문화 및 비다문화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모니를 내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화합하며 상호 유대감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합창단은 올해 세 번째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앞으로도 더욱 멋진 활약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문의 070-8831-8431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6월 21일 화성시가족봉사단 23가족 77명이 모여 발안 만세시장과 발안천 일대에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인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이번 플로깅 활동은 화성시가족센터가 발안 만세시장 내로 이전함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개관을 앞두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가족봉사단은 만세시장 주변 골목과 인근 발안천 산책로를 따라 걷고,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수거하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봉사단 참여 가족은 "화성시가족센터 근처의 쓰레기를 줍고 환경정화를 하며 가족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밝혔다.

박미경 센터장은 "앞으로도 가족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가족봉사단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시가족센터 가족봉사단과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문의는 070-7774-7087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 가족교육의 중심! 화.성.가족행복학교

저학년편

## 초등기 부모교육

😊 자녀의 자존감에 대한 이해 및 가족 대화법 교육

**대상** 관내 초등기 저학년(1~3학년) 자녀를 둔 20가정

**신청** 구글 폼 접수(QR코드 참고)

**장소** 화성시가족센터(향남읍 평2길 16) 3층 소강의실1

**문의** 역량강화팀 070-7774-7081

일시	내용	비고
7월 16일(수) 10:00~12:00	자존감으로 성장하는 내 아이	부모만 참석
7월 18일(금) 10:00~12:00	부모와 아이가 서로 존중하는 대화	
7월 19일(토) 10:00~12:00	자녀와 함께하는 베이킹 Time (컵케이크&쿠키만들기)	부모-자녀 참석

\*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성시가족센터 가족교육의 중심! 화.성.가족행복학교

## 예비신혼기 부부학교

하반기 (8~11월) 참여자 모집

**모집 대상** 18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커플) 10쌍  
\* 일괄 모집 중이며, 정원 초과 시 일정(8~11월) 모두 참여 가능한 커플 우선 선정됩니다. 부득이 부분 참여 시, 신청 후 별도 연락 바랍니다.

**접수 기간** ~ 모집 마감 시까지 (선착순)

**신청 방법** 참가비 무료 / QR 신청 (남편, 아내 모두 신청)

**문의** 역량강화팀 070-7774-7082

신청 QR

구분	일시	내용	장소
8월	2025. 8. 2.(토) 10:00~14: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비부부 소통교육 <input checked="" type="checkbox"/> 힐링 프로그램 - 사랑의 징표 '커플 가족지갑' 만들기	다원이음터
	2025. 9. 25.(목) 19:30~2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 원가족 이해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힐링 프로그램 - 양가 부모님께 선물해요 '찰떡 머핀' 만들기	각 가정 (zoom)
9월	2025. 9. 27.(토) 10:00~14: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 원가족 이해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힐링 프로그램 - 양가 부모님께 선물해요 '찰떡 머핀' 만들기	다원이음터
	2025. 10. 21.(화) 19:30~2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비부부 재무교육 (입문편)	각 가정 (zoom)
	2025. 10. 23.(목) 19:30~2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비부부 재무교육 (심화편)	
10월	2025. 11. 1.(토) 10:00~14:00 중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비부부 재무교육 (컨설팅편) : 워크북 제공 및 커플별 컨설팅 * 커플당 20분 진행 / 신청순에 따라 시간 배정 예정	다원이음터
	2025. 11. 29.(토) 10:00~13: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비부부 이해교육 : 동탄호수공원 인근 카페 이용권 제공	다원이음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กรมดับเพลิง, จัดแคมเปญเผยแพร่วัฒนธรรมการใช้รถ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 119 อย่างถูกต้อง วัฒนธรรมการใช้รถ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 119 อย่างถูกต้อง, 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มาร่วมสร้างไปด้วยกัน

กรมดับเพลิง (อธิบดี ฮอ ซอกกอน) กำลังดำเนินการ “แคมเปญวัฒนธรรมการใช้รถ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 119 อย่างถูกต้อง” เพื่อรักษาช่วงเวลาทอง ใน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ผู้ป่วยฉุกเฉินและลดการสูญเสียทรัพยากรของหน่วยดับเพลิงโดยไม่จำเป็น

ผ่านแคมเปญในครั้งนี้ สิ่งที่กรมดับเพลิงต้องการประชาสัมพันธ์ให้ประชาชนและ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รับทราบ มี 3 เรื่อง คือ ▲ หลีกเลี่ยง การแจ้งเหตุฉุกเฉินโดยไม่จำเป็น ▲ ยุติการทำร้าย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 119 ▲ เคารพการตัดสินใจของ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 ฉุกเฉินในการเลือกโรงพยาบาล ลงมามาดูกัน อย่างละเอียดว่าหมายถึงอะไรบ้าง?

หลีกเลี่ยงการแจ้งเหตุฉุกเฉินโดยไม่จำเป็น บางครั้งเมื่อมีคนป่วย ก็มีคนโทรแจ้ง 119 ให้รถพยาบาลมาที่บ้าน มีบางกรณีผู้ป่วยไม่ได้อยู่ในภาวะฉุกเฉินจริงๆ บางคนถึงขั้นโทรเรียก 119

และขอรถพยาบาลเพียงเพราะปวดฟันหรือเป็นหวัด ซึ่งเป็นเรื่องที่ไม่สมควรอย่างยิ่ง รถ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ควรเตรียมพร้อมสำหรับผู้ป่วยฉุกเฉิน

จริงๆ เช่น ภาวะหัวใจหยุดเต้น, โรคหลอดเลือดสมอง, กล้ามเนื้อหัวใจขาดเลือด, หรืออุบัติเหตุรุนแรง หากเรียก

รถพยาบาลด้วยเหตุเล็กน้อย

อาจทำให้ผู้ป่วยที่มีอาการฉุกเฉินจริงๆ ตกอยู่ในอันตรายได้

ยุติการทำร้าย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 119 เจ้าหน้าที่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 119 ทำงานอย่างหนักเพื่อปกป้องชีวิตและ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ในช่วงหลังมานี้ กลับเกิดเหตุการณ์ที่มีผู้ทำร้ายหรือขัดขวางการปฏิบัติงานของเจ้าหน้าที่อยู่เป็นประจำ จากสถิติของกรมดับเพลิง พบว่าในช่วง 5 ปีที่ผ่านมา มีเหตุการณ์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ถูกทำร้ายรวมทั้งหมด 1,185 ครั้ง

เฉลี่ยแล้วมีเจ้าหน้าที่ประมาณ 309 คนต่อปีที่ถูกเป็นเหยื่อของเหตุการณ์เหล่านี้ ซึ่งเป็นตัวเลขที่มากจนรู้สึกตกใจเลยทีเดียว

การทำร้ายร่างกาย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 ถือเป็นอาชญากรรมร้ายแรงที่ส่งผลให้เจ้าหน้าที่สูญเสียขวัญกำลังใจและทำให้การปฏิบัติงานช่วยชีวิตลดลง ซึ่งอาจทำให้คุณภาพของบริการฉุกเฉินแย่ลง ผู้ที่ก่อเหตุส่วนใหญ่มักอยู่ในอาการเมา และควรตระหนักไว้ว่าการกระทำ เช่นนี้มีโทษรุนแรงตามกฎหมายว่าด้วยการดับเพลิง เคารพการตัดสินใจของ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

ฉุกเฉินในการเลือกโรงพยาบาล

เมื่อมีผู้ป่วยฉุกเฉินขึ้นรถพยาบาล 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จะพิจารณาโดยครอบคลุมทั้งความรุนแรงของอาการผู้ป่วย ความพร้อมของ แผนกที่เกี่ยวข้อง, 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รักษาและการผ่าตัด ตลอดจนข้อมูลจำนวนเตียงว่างในท้องฉุกเฉินแบบเรียลไทม์ เพื่อเลือกโรงพยาบาลที่จะนำผู้ป่วยส่งตัวไปอย่างเหมาะสม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 มีผู้ป่วยหรือผู้ดูแลบางรายที่ร้องขอว่า “ไปโรงพยาบาลที่ใกล้บ้านที่สุดนะครับ”, “มีหมอที่รู้จักอยู่ที่โรงพยาบาล ○○”, “ขอไปแต่โรงพยาบาลใหญ่เท่านั้น” เป็นต้น การกระทำเช่นนี้เปรียบเสมือนการไม่เชื่อมั่นในการตัดสินใจอย่างมืออาชีพของเจ้าหน้าที่ 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 และยืนยันที่จะทำตาม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ของตนเอง

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ฉุกเฉิน เราควรเคารพการตัดสินใจของ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ไม่ว่าจะนำส่งโรงพยาบาลใดก็ตาม

ผู้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ก็ควรส่งเสริมและให้กำลังใจเจ้าหน้าที่หน่วยพยาบาลฉุกเฉินที่ทุ่มเทอย่างเต็มที่เพื่อช่วยชีวิตผู้คน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ที่ยากลำบาก และควรมีส่วนร่วมในแคมเปญครั้งนี้ด้วย <한글 기사 2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Видео уралдаанаар дамжуулан олон соёл зэрэгцэн орших нийгмийн уур амьсгалыг бүрдүүлцгээе” ‘이주민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기도’ 영상콘텐츠 공모전

Гэнги аймаг ирэх 7-р сарын 18-ныг хүртэл “Цагаач иргэдтэй хамтдаа хөгжих Гэнги аймаг” сэдэвт анхдугаар видео контентын уралдааныг зохион байгуулж байна.

Энэхүү уралдаан нь олон нийтэд цагаач нийгмийн талаарх ойлголтыг нэмэгдүүлэх, мөн олон соёл зэрэгцэн орших нийгмийн уур амьсгалыг бүрдүүлэх зорилготой.

Анх уралдааны материалыг 6-р сарын 20-ныг хүртэл хүлээн авахаар төлөвлөж байсан ч хугацааг сунгаж, 7-р сарын 18-ныг хүртэл хүлээн авахаар болсон байна.

Энэхүү уралдаанд гадаадын иргэн (иргэншил авсан хүмүүсийг оролцуулан) болон цагаачдын нийгэмд нийлэх асуудалд сонирхолтой хэн бүхэн хувь хүн болон баг (2–5 хүн) хэлбэрээр оролцох боломжтой.

Уралдааны сэдэв нь “Цагаач иргэдтэй хамтдаа хөгжих Гэнги аймаг – Цагаач нийгмийн нэгдэл ба зохицол” юм.Энэ сэдэвтэй холбоотой аливаа агуулга байж болох бөгөөд сэдвийн хүрээнд ямар ч төрлийн бүтээлийг хүлээн авна.

Уралдаан нь дараах хоёр ангилалтай: △ Цагаа

ч нийгмийн нэгдлийг харуулсан олон нийтийн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шорт форм видео △ Цагаач иргэд ба орон нутгийн иргэдийн зохицлыг харуулсан туршлага хуваалцсан видео.

‘Олон нийтийн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ны шорт форм видео’ нь уралдааны сэдэвтэй холбоотой, олон нийтэд чиглэсэн агуулгатай бичлэг байх ёстой. ‘Туршлага хуваалцсан видео’ нь төрсөн улс, гэр бүлийн амьдрал, Солонгос Улсад ирэх болсон түүх, одоогийн амьдрал болон ирээдүйн мөрөөдөл, зорилго зэргийг багтаасан хувь хүний түүх байж болно.

Шалгаруулалтаар тодорсон шилдэг бүтээлүүдэд нийт 15 сая воны шагнал болон Гэнги аймгийн захирагчийн өргөмжлөл гардуулна.

Шагналын ангилал нь дараах байдлаар байна: △ Гран при (2 хүн) – тус бүр 3 сая вон, △ Тэргүүн байр / Шилдэг шагнал (2 хүн) – тус бүр 2 сая вон, △ Дэд байр / Төвшингийн шагнал (2 хүн) – тус бүр 1 сая вон, △ Тусгай шагнал / Урамшууллын шагнал (6 хүн) – тус бүр 500,000 вон.

Нэг хүн хэд хэдэн бүтээл ирүүлсэн тохиолдолд давхар шагнал авах боломжгүй бөгөөд хамги

йн өндөр оноо авсан ганц бүтээл нь шалгаруулахад тооцогдоно.

Оролцохыг хүсэгчид дараах бичиг баримтыг цахим шуудангаар (bravo8032@gg.go.kr) илгээн бүртгүүлнэ.Оролцох хүсэлт нь уралдааны бүтээлээс гадна уралдааны өргөдөл, зөвшөөрөл, тангараг өргөх бичгийг цахим шуудангаар (bravo8032@gg.go.kr) илгээх хэрэгтэй. Эдгээр бичиг баримтыг “ПапаяаСтори” ток цэснээс татаж авах боломжтой.

Дэлгэрэнгүй мэдээллийг Гэ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 нийгмийг дэмжих хэлтсээс лавлаж болно. (031-8030-4682)

Гэнги аймгийн Цагаач нийгмийн газрын дарга Ким Вон Гю “Олон нийтийн зар сурталчилгаа болон туршлага хуваалцах бичлэгээр бодит жишээг хуваалцсанаар цагаачид ба орон нутгийн иргэдийн харилцаа, харилцан ойлголтыг улам идэвхжүүлэх төлөвлөгөөтэй” байна. “Энэхүү уралдаанаар цагаач нийгэмд эерэг өөрчлөлт авчрах олон сайн контентууд олноор төрөн гарахыг хүсье” гэж хэллээ. <한글 기사 5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 탐색과 체험 함께하며, 아빠와 자녀의 사랑이 더욱 커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떠난 특별한 곤충 탐험’...화성시가족센터, 아빠품앗이 활동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6월 21일 아빠품앗이 13가족과 함께 용인 곤충테마파크를 방문해 아빠와 자녀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품앗이 중에서도 아빠가 주체가 되는 ‘아빠품앗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아빠와 자녀만 함께하는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구성됐다. 참여 가족들은 유정란 꺼내오기와 곤충 생태체험을 통해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기회를 얻었다.

또한, 샌드아트, 동물농장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친밀감을 높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탐색과 체험을 함께 하는 과정을 통해 아빠와 자녀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으며, 다른 아빠품앗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양육을 실천하는 아빠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도 이뤄졌다.

특히 유정란을 꺼내는 활동에서는 아이들과 아빠 모두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 참가자는 “아빠랑 단둘이 떠난 작은 여행 같았다. 이 낯선 경험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제는 아빠가 주체가 되어

양육환경을 함께 이끌어가야 할 때”라며 “가볍고 일상적인 실천부터 시작해 가족 중심의 돌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화성시가족센터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는 현재 공동양육을 실천하는 가족 품앗이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아빠품앗이 양성과 운영으로 지역사회 가족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버지의 돌봄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아빠품앗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및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화성시가족센터에서 활동 중인 아빠품앗이는 총 7개 그룹, 21가족 70여 명이 함께하며 공동양육을 실천하는 아빠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시선을 맞추고 하나 되는 소통' 관계 향상 프로그램



화성시가족센터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10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관계향상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교육과 자녀 돌봄, 가족프로그

램이 동시에 진행됐으며 각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됐다.

가족교육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건강한 대화법 배우기’, ‘서로의 강점 찾아보기’, ‘건강하게 감정 표현하는 법’, ‘몸의 대화 중요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가족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들은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자연과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즐겁게 지내며, 체험을 통한 학습을 할 수 있었다.

가족교육과 자녀돌봄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후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 이뤄졌다. ‘불고기전골 밀키트 만들기’, ‘화분케이크 만들기’, ‘피크닉

도시락 만들기’, ‘하지 감자빵만들기’ 등 다양한 요리 프로그램이 진행돼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며, 함께 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박미경 센터장은 “다문화가족 관계향상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내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이해와 소통 증진을 목표로, 갈등 해소 및 유대감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화성형아이키움터(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돕고 가족친화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가족 사업들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역량강화팀(070-7774-7081)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 내외국인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간...화성시가족센터, 문화소통 프로그램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

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국인 6명, 외국인 10명 등 총 16명이 참여했으며, 내.외국인이 사진을 매체로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얻었다.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간’은 생활문화창작소 공승환 감독을 초빙해 ‘스마트폰으로 사진 잘 찍는 방법’을 주제로 함께 사진 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4회기 프로그램을 종료한 참가자들은 “평소에 사진 찍은 것이 관심 많은데, 선생님께서 디테일하게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도움 되었다.”라며

“사진을 배움으로 여러 다문화 가정의 분과 친해지고 소통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사진의 다양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지역, 가족 특성을 고려한 교육, 문화, 상담,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 화성형 아이키움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화성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또는 센터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 이주배경청소년 문화소통, 함께 해요!

###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서연이음터, 업무협약 체결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센터장 강은이)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임선일)는 지난 6월 24일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시 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이 상호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이야기로 잇는 우리, Near & Dear'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야기로 잇는 우리, Near & Dear'은 동탄서연이음터(본부장 전윤정)가 도서관 운영 노하우를 녹여 개발한 것으로, 그림책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문화소통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소속 이주배

경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6회기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이야기로 잇는 우리, Near & Dear'는 '이야기로 서로의 마음을 잇고, 서로를 더 가까이'라는 취지 아래 참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긍정하고 자긍심을 함양하는 동시에,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 문화적 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특히 그림책을 매개로 한 감정 표현, 의성어·의태어 학습, 가족관계 표현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한국어 문해력 향상과 포용적 공동체 형성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동탄서연이음터 전윤정 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 내 청소년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 가족자녀 부모교육 실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6월 21일 다문화가족 아동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 마음 알기'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부모교육 1강 '우리 아이 기질과 성격 이해하기'를 주제로 운영됐다. 사전에 온라인으로 아동과 학부모 TCI(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기질 및 성격) 검사를 진행한 후 결과를 해석하면서 아이와 부모의 기질과 성격이 다를 수 이해하고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참가자들은 아이마다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은 변하지 않지만 다양한 경험과 사회적 관계에 따라 성격을 형성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넘치는 부분은 조절해 주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됐다.

참여 학부모들은 "아이가 착하고 말을 잘 들어서 좋으면서도 너무 참기만 해서 걱정이 많이 됐다. 그러나 기질 검사를 통해 위험 회피와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이 높은 기질임을 이해하게 됐다"라며 "강연을 듣고 성격 검사에서 낮게 나온 자율성을 키워주면서 자기존중감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기초학습지원사업 '우리 아이 마음 알기' 부모 교육은 다문화가족, 중도입국가족, 난민, 외국인 가족 자녀와 학부모 모두 참여할 수 있다. 6월 28일에는 2강 '푸드테라피로 아이와 소통하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070-8831-8623

김영의 기자

## '블루베리 수확하며 정서적 지지 UP'

### 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으로 가족역량 강화해요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6월 21일 '온가족 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사례관리를 진행 중인 대상자 가정의 가족 소통을 높이고 유대감 형성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블루베리 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문화체험프로그램에는 사례관리를 진행 중인 대상자 40명이 참여했으며,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체험하며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소통과 정서적 지지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블루베리 수확과 감자 캐기, 앵두 따기 등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바쁜 일상속 부족했던 가족 간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센터는 가족 구성원들이 협동하는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지지와 격려를 강화하고 가족 기능을 회복하는 데 일조했다.

한편 '온가족보듬사업'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다. 가족상담, 사례관리,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 기능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시가족센터는 올 하반기에도 가족 기능의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연결망을 형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온가족보듬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상담사례팀(070-774-7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한국생활 처음 참여인원 모집

# 한식 라이브

모집기간	2025. 7. 1(화) ~ 7.18(금)
모집대상	한국입국 한지 5년 미만 결혼이민자 10명(신규회원 우선)
사업일정	7월~11월 월별 1회(아래 달력 참고)
사업장소	화성시가족센터 3층 요리실(항남 평2길 16)
신청방법	구글 폼 접수(QR코드 참고) →

**\* 아래날짜로 1회이상 신청가능합니다 \***

1회 7월 23일	2회 8월 13일	3회 9월 3일	4회 10월 1일	5회 11월 5일
-----------------	-----------------	----------------	-----------------	-----------------

전통 김치 만들기

추석 송편 만들기

화성특례시 | 화성시가족센터 | 070-774-7080

## ‘가족이 웃는 도시, 화성 실현...가족복지 거점 확보했다!’

화성특례시 가족만세센터 개관...가족상담실,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시설 갖춰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와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6월 23일 향남읍 발안만세시장 내 ‘화성특례시 가족만세센터’에서 개관식을 열고 포용적 가족 서비스 제공의 시작을 알렸다.

가족만세센터는 향남읍 평2길 16에 연면적 6,730㎡, 지상5층·지하1층 규모로 조성된 가족복합지원시설이다. 공공예식장 기능을 겸하는 만세홀(대강당)을 비롯해 다목적소통교류공간, 가족상담실,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 시설에 입주한 화성시가족센터는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 ▲생애주기별 가족 교육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가

족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포용적 가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박구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서명수 협성대학교 총장, 윤성은 한국가족센터협회장 등이 참석해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내빈 소개, 가족만세센터 건립 유공자 표창, 기념사 및 축사, 축하공연, 시설 라운딩 등으로 진행됐으며, 비전 세레모니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가족정책의 미래를 다짐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한, 아동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댄스 스포츠 공연과 다문화 어린이합창단 공연이 큰 호응을 받았으

며, 세계 각국의 다과가 마련된 케이터링 행사를 통해 참석자 간 소통과 화합의 장도 이어졌다.

정명근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가족이 웃어야 도시가 행복하다”는 명제를 실현할 센터가 문을 열어 기쁘다”며 “화성시가족센터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거점이 되어 더 따뜻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정수 의장은 “다양한 가족의 삶을 존중하고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는 이번 화성특례시 가족만세센터 개관과 함께 기존 병점 유아이센터 내 위치한 화성시가족센터 동부권 분소 운영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을 갖춘 동·서부 생활권 중심의

가족지원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화성시가족센터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며, 정규 인력 46명과 아이돌보미 등 분야별 전문 인력 338명이 43개 건강가정·다문화 지원 사업, 아이돌봄지원 사업, 11개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는 가족만세센터와 동부권 분소를 중심으로 가족상담,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며, 지속 가능한 가족친화도시 모델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황당연 화성시 여성다문화과장은 “화성특례시 가족만세센터는 가족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며 “가족의 삶을 돌보고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